

1990년대 한국 소설과 음모론적 상상력

안세진* · 서육희** · 장원석***

1. 서론
2. 대중성을 얻은 음모론 서사,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
3. 순수문학과 음모론적 상상력의 혼종적 조우
4. PC통신이라는 소수적 영토와 무화(無化)되는 '적'
5. 결론

국문초록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할 '적(敵)'의 형상은 분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 형식적 민주화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시에 적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으로 상정될 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현실 위에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처했던 근본적인 위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여기에서 지속되는 불가해한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당대 한국에서는 '음모론'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한국의 맥락에서 음모론의 이야기들은 사라진 1980년대적 거대서사를 대리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야기의 '아노미' 속에서 음모론적 상상력은 다원화된 1990년대식 적대의 구조를 우회하며 집단적 적의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선형적이고 이분법적인 해석틀을 제공했다.

* 제1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본고는 1990년대 발흥한 일련의 ‘음모론 소설’들이 동시기 현실과 조응하는 1990년대 문학의 한 양상으로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음모론이라는 틀을 통해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포괄한 1990년대 한국문학 장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인지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2장은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993), 그리고 이명행의 <황색새의 발톱>(1993)을 통해 대중문학 장에서 펼쳐진 음모론적 상상력이 야기한 주체의 독특한 행위성과 그 뒤편에 놓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조명하였다. 3장은 작가세계 신인상 2·3회 수상자인 장태일의 <49일의 남자>(1993)와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1994)를 통해 음모론적 상상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당시 문단의 상업적 욕망과 더불어, 그러한 상상력이 후일담과 메타픽션이라는 순수문학의 관습적 외피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한계를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송경아의 <유괴>(1994), <송어와 은어>(1994) 그리고 듀나의 <스핑크스 아래서>(1998), <꼭두각시들>(2000)을 통해 PC통신이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음모론적 상상력이 마치 하나의 비판적 서사 기법처럼 사용되며, 음모의 중핵에 놓인 적의 형상이 소설 밖 작가, 성소수자, 그리고 텅 빈 공허로 대체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주제어: 1990년대 한국문학, 음모론, 국가주의, 작가세계 문학상, PC통신)

1. 서론

소설의 주인공은 신을 찾아나선 자라기보다 오히려 부정의 대상인 적을 찾아나선 자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신이 아니라 적의 부재이

다. 특히 지금 우리의 시대, 90년대에 더욱 그러하다.¹⁾

이전과 달라질 1990년대 소설의 운명을 점검보는 자리에서, 한 평론가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적의 부재”라고 이야기한다. 기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할 ‘적(敵)’의 형상은 분명했다. 보수 진영에게 그것은 북한과 소련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이념이었고, 진보 진영에게 그것은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군부독재 권력이었다. 요컨대, 자유주의 대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구도와 국가권력 대 민족·민중이라는 변혁적 구도가 당대적인 정치/사회적 적대의 전선을 명확하게 분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1980년대가 개인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가 어떠한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든 관계없이, 1980년대의 개인은 명확한 적의 형상을 바탕으로 자신을 둘러싼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공고히 만들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이 이루어진다면 지금-여기 존재하는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보수와 진보 진영 양쪽의 의제는 예상치 못하게 수렴하기도 했다.

1990년대, 적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1987년 형식적 민주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두환은 현실정치로부터 퇴장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고 2년 후 소련은 붕괴했다. 두 적의 상징적 죽음과 동시에 한국 사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이행한 것처럼 보였고, 1980년대적 적대의 구조를 구성했던 양 진영은 각기 바라던 결과를 손에 넣게 되었다. 문제는 적의 퇴장에도 불구하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소영의 지적

1) 서영채, 「소설의 운명, 1993」, 『상상』 1993년 가을호, 169쪽.

대로 87년 체제 이후 한국 사회의 적대의 구조는 기존 ‘통치세력-민중’의 이자적 구도로부터 다원적인 방향으로 재편되게 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 이와 같은 적대의 구조가 일상 속으로 침투되어 피아를 구분할 수 없는 방향으로 뒤섞이게 됨을 의미하고 있었다.²⁾ 신자유주의적 질서로의 진입이 전면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맑시즘 그리고 반공주의의 거대 서사는 더 이상 이전처럼 기능하지 못했으며, 이념적 블록이 해체되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된 국제질서는 기존의 정치적 대립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처럼 보였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으로 상정될 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현실 위에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처했던 근본적인 위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여기에서 지속되는 불가해한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1990년대 한국에서는 음모론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음모론(conspiracy theory)’은 기본적으로 지금 ‘나’가 받고 있는 비합리적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사유의 패턴이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³⁾라는 의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음모론은 “비합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인식되는 숨겨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비밀리에 합의하여 협력하”⁴⁾는 집단적 적의 존재를 상정한다. 그리고 그것은 ‘나’의 고통과 그것을 야기한 가상의 적 사이의 - 거의 범세계적인 음모의 수준으로 확장되는 - 아득한 거리를 어떠한 예외도 허락하지 않는 합리성으로 꼼꼼하게 채워

2) 이소영,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18쪽.

3) Dieter Groh, “The Temptation of Conspiracy Theory, or: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Part I: Preliminary Draft of a Theory of Conspiracy Theories”, *Changing Conceptions of Conspiracy*, Springer, 1987, pp.1-2.

4) 안 빌헬름 반 프로이엔, 『음모론』, 신영경 역, 돌베나무, 2020, 18쪽.

넣는다.⁵⁾ 요컨대, 음모론은 고통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의 음모 집단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잉된 합리성을 부여하는 ‘세속적 신정론(神正論)’의 변형된 판본인 것이다.⁶⁾

물론 한국에서 음모론이 1990년대에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체적인 적의 형상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려 한다는 점에서 음모론적 인식 방법은 보편적이라고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한국의 1990년대는 이전 시대와 변별된다. 당시 한국 사회가 놓인 여러 국내/외적 조건들은 음모론적 상상력의 확산과 유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우선, 군부독재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취에 힘입어 보도지침, 언론인 해직, 정기간행물 등록취소로 대표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87년 체제’ 이후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철폐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독소조항을 폐지한 언론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고, 검열의 근거가 되었던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었으며, 새롭게 제정된 정기간행물등록법은 일간지와 잡지의 신규 등록을 크게 촉진하였다.⁷⁾ 사실상 공적 담론만이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었던 이전 시기

5) 분명한 선악구도로 대표되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와 그러한 음모 집단의 계락을 증명하기 위해 동원되는 ‘인과론적 선형성’은 음모론의 개념을 정의하는 중요한 변별적 특징으로 언급되어 온 바 있다. (주은우, 「음모이론의 세계 - 그들의 음모, 우리들의 음모」, 『리뷰』 1998년 겨울호, 221쪽.)

6)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2014, 19-26쪽.

7) <4개언론법안 오늘처리>, 『조선일보』, 1987.11.10.,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049219871110m1013&set_date=19871110&page_no=1 (검색일: 2025.02.17.); <정기간행물 취소사유 크게 축소>, 『경향신문』, 1987.08.1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81000329201003&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7-08-10&officeId=00032&pageNo=1&printNo=12882&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정기간행물 6백56종 6.29이후 신규 등록>, 『조선일보』, 1988.07.20.,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070419880720m1021&set_date=19880720&page_no=2. (검색일: 2025.02.17.)

와 달리 1990년대에는 다원적인 대항지식이 형성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단적으로, 케네디 암살이 1960년대 미국의 대중매체·문화에서 즉각적으로 대량의 음모론 서사를 촉발했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⁸⁾ 박정희 피살과 관련한 다종의 서사가 199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유통될 수 있었다는 사실은 1990년대 한국에 대항지식으로서의 음모론이 생산·소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⁹⁾

이와 더불어 냉전의 종식은 세계 질서를 이념이 아닌 경제 논리에 입각해 새롭게 재편하였다. 이전까지 선진국 중심이었던 자유무역 질서는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를 기점으로 117개국의 15개 협상 분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 이후 WTO 체제로의 일원화를 예비하게 되었다.¹⁰⁾ 쌀 수입 개방에 대한 첨예한 논쟁을 낳은 UR에 대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보다는 가트 체제 속의 경쟁과 협력을 선택”¹¹⁾했다는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이 이제 재편된 세계 질서 속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더 나아가 미국을 움직이는 초국적 자본

8) Timothy Melly, “Conspiracy in American Narrative”, *Routledge Handbook of Conspiracy Theories*, Routledge, 2020, p.427.

9) 『월간조선』 1987년 1월호에 실린 조갑제의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시작으로 1990년대 초 주요 일간지에서는 박정희 암살에 얽힌 비화를 특집 형식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그 대략적인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진, 『청와대비서실』, 중앙일보사, 1992; 김충식, 『남산의 부장들』, 동아일보사, 1992; 정병진, 『궁정동 총소리』, 한국일보종합출판, 1992; 김재홍, 『운명의 술 시바스』, 동아일보사, 1994.

10)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94, 13-14; 18-22쪽.

11) 김영삼, 「UR 협상 타결과 관련한 대통령 담화문(고립을 택할 것인가,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대통령기록연구실, 1993. (박해남, 「1990년대의 국제화·세계화와 대중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 제77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498쪽에서 재인용.)

은 UR에 얽힌 음모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¹²⁾ 다른 한편, 일본이 냉전 시기 확대해왔던 자위대를 통해 미국을 대신해 동북아방위를 전담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역시 1990년대 초였다.¹³⁾ 당대 한국을 압도하는 수준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은 한·미·일 방위 훈련을 주도할 뿐 아니라 자위대의 PKO 파병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써 ‘군사대국화’를 꾀했고, 그에 따라 증대된 한국 내 불안은 음모론적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¹⁴⁾

-
- 12) <잘개방 어디로 가는가 압력 배후엔 「곡물메이저」, 『경향신문』, 1993.12.03.,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20300329104003&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12-03&officeId=00032&pageNo=4&printNo=14934&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UR농산물 협상 배후설, 『조선일보』, 1993.12.08.,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54019931208m1071&set_date=19931208&page_no=7. (검색일: 2025.02.17.)
- 13) <8.15 45주년 다시 일본을 경계한다 동북아패권 겨냥 자위대 증강, 『한겨레』, 1990.08.18.,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081800289103005&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08-18&officeId=00028&pageNo=3&printNo=70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14) <일본의 끈질긴 「군사대국」야망 경계심갖고 외교 대응 서둘때, 『동아일보』, 1992.03.3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3310020921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2-03-31&officeId=00020&pageNo=15&printNo=21781&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PKO입법 일본의 ‘변신’ 유엔 열고 ‘군사대국’ 눈앞에, 『한겨레』, 1992.06.0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605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6-05&officeId=00028&pageNo=1&printNo=1253&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부활하는 일본 군국주의, 『한겨레』, 1992.06.2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62100289110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6-21&officeId=00028&pageNo=10&printNo=1267&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이런 흐름 속에서 1992년 방영된 MBC 드라마 <분노의 왕국>에 등장한 천황 암살 시도 장면은 한·일간의 외교 갈등뿐 아니라 일본 극우단체의 시위로까지 번졌다. (TV극 「분노의

이러한 국내/외 정치적 질서의 변동 속에서 1990년대 한국 사회는 대중문화로부터 음모론적 상상력을 수혈했다. 1990년대 한국에서 대중문화는 소비문화와 결합하면서 주류 문화로 부상하게 되는데, 그 직접적 원인으로서는 영상문화의 확산과 1994년 이후 본격화된 정보화의 흐름을 꼽을 수 있다.¹⁵⁾ 특히 미국발 음모론 서사의 수용은 대중문화 속 음모론 소비의 기제를 잘 보여준다. 케네디 암살 음모를 소재로 한 올리버 스톤의 <JFK>는 1992년 한국에 개봉해 흥행에 성공했으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KBS에서 방영한 드라마 <X파일>은 UFO 음모 등을 소재로 PC통신을 통해 입소문을 타며 신세대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¹⁶⁾ 이러한 열풍은 <멘 인 블랙>(1997)과 <컨스피러시>(1997)와 같은 음모론 소재 영화의 개봉으로 이어졌다.¹⁷⁾ 이에 대중문화 전문 잡지 『리뷰』는 1998년 겨울 <세기말의 음모이론> 특집을 기획해 당시 유행하는 음모론을 분석하는 한

왕국」한·일 파문확산」, 『동아일보』, 1992.04.1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41100209210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4-11&officeId=00020&pageNo=10&printNo=21791&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15) 주은우, 「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 『한국사회학』 제48권 5호, 한국사회학회, 2014, 78쪽.

16) <영화「JFK」 뜻밖의 흥행성공>, 『동아일보』, 1992.05.2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52300209226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5-23&officeId=00020&pageNo=26&printNo=21832&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KBS2 외화극「X파일」 공포의 미스터리 신세대 사로잡아>, 『동아일보』, 1995.10.2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10230020913300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0-23&officeId=00020&pageNo=33&printNo=23005&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17) 김정선, 「음모론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한국영화의 징후들: 편집증적 세계관의 정상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6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이지행, 「후기 자본주의 시대 헐리우드 음모론 영화의 정치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3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편 독자들을 대상으로 음모론 창작 콘테스트를 주최하기도 한다.¹⁸⁾ 여기에 ‘세기말 증후군’으로 불렸던 집단적 불안의 정서가 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¹⁹⁾ 상술한바, 격변하는 세기말의 불가해한 고통과 불안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음모론은 이처럼 매력적인 동시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이렇듯 1990년대 한국의 맥락에서 음모론의 이야기들(narratives)은 사라진 1980년대적 거대서사를 대리보충(supplement)하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맑스주의라는 거대서사의 상실이든 또는 반공주의라는 거대서사의 상실이든, 1990년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러한 이야기의 ‘아노미’ 속에서 음모론적 상상력은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하나의 해석틀을 제공했다. 이는 음모론을 후기자본주의의 전일적 논리가 지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세계 속에서 ‘인지적 지도그리기(cognitive mapping)’를 시도하는 절박한 몸짓으로 평가한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와도 상통한다.²⁰⁾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 속에서 “커다란 이야기(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대체한 것은 날조된 허구의 이야기들이라는 오쓰카 에이지의 지적 역시 1990년대라는 체제 전환기에 음모론적 상상력이 대두하

18) 해당 특집에서 인터넷 문화잡지 『펄프』의 편집장 곽동훈은 〈X파일〉의 주연 데이비드 듀코브니의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인용하고 있다: “〈X파일〉은 일종의 올리버 스톤 식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악당들이 있고, 우리 모두가 불행한 이유는 그 악당들 때문이란 거죠.” 그는 이러한 “음모이론”을 자신을 포함한 “요즘 사람들” 모두가 좋아한다고 덧붙인다. (곽동훈, 「저는 음모이론의 팬이에요」, 『리뷰』 1998년 겨울호, 252쪽.)

19) 〈세기말, 끝인가 시작인가〉, 『경향신문』, 1997.04.1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041200329125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4-12&officeId=00032&pageNo=25&printNo=16075&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20) Fredric Jameson, “Cognitive Mapping”, Cary Nelson 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Macmillan Education, 1992, p.356.

게 되었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²¹⁾ 이러한 맥락에서 1990년대 한국 사회에서 발흥했던 수많은 음모론적 상상력들은 가상의 적을 내세워 국민의 고통을 위무하며 체제를 수호하고자 했던 ‘통치의 시도들’임과 동시에, 음모론의 성긴 인식틀을 빌려서라도 불가해한 현실에 대응하며 다가올 세계 질서의 행방을 점쳐보려 했던 ‘예언적 시도들’이기도 하다.²²⁾

1990년대 한국 소설은 당시 한국 사회에 퍼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음모론적 상상력에 매우 기민하게 반응했다. 1990년대 초부터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와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비롯한 일련의 소설들이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많은 대중적 관심을 받게 되는데, 해당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음모론의 내러티브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대부터 주목되어 왔다.²³⁾ 순수문학 장 역시 상업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당대 유행

21) 오쓰카 에이지, 『物語消費論改』, 아스키·メディアワーク스, 2012, 26쪽. (아즈마 히로키,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역, 문학동네, 2007, 73쪽에서 재인용.) 이때 아즈마가 오쓰카를 인용하며 정의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상황’이란 리오타르가 말한 ‘거대담론의 조락’, 즉 근대적 이성, 개인, 국민국가와 같은 기존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몰락해가는 상황을 지칭한다.

22) 전상진은 그의 책에서 음모론을 ‘통치의 음모론’과 ‘저항의 음모론’의 양자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자가 사회적 위기의 책임을 음모 집단에 돌림으로써 지배 질서 및 권력을 정당화·공고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면, 후자는 반대로 그러한 지배적 담론 또는 권위를 음모의 배후로 지목함으로써 대항 지식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전상진, 앞의 책, 113-124쪽.)

23) <추리기법·민족주의화두 90년대 소설의 주류 형성>, 『경향신문』, 1993.11.09.,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1090032911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11-09&officeId=00032&pageNo=15&printNo=14912&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올해의 베스트셀러 우리민족-문화 관심 흐름 주도>, 『조선일보』, 1993.12.18.,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54919931218m1131&set_date=19931218&page_no=13. (검색일: 2025.02.17.); <화제의 소설 「영원한 제국」,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화로 만든다>, 『동아일보』, 1994.06.03.,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40603&mode=19940603%2F0001921202%2F1>. (검색일: 2025.02.17.); <「무궁화꽃이…」 4백만부 팔려

하였던 음모론적 상상력을 일부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한 경향성은 작가세계 문학상을 필두로 1990년대 초반 제정된 '장편소설 공모'의 사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드러난다. 한편, 당대 새롭게 발흥했던 PC통신의 영역에서 두나나 송경아 같은 작가는 장르문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음모론이라는 소재를 이리저리 비틀고 패러디해 '메타 음모론' 서사의 독특한 지평을 열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사에서 1990년대 한국 소설이 보여주고 있었던 이상의 면모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1990년대 한국문학 연구의 열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1980년대의 기억과 관계 맺는 1990년대 문학의 지배적 서사형태로서 후일담 문학의 형식이 주목받았다.²⁴⁾ 둘째로, 1994년 창간된 『문학동네』를 중심으로 당대 문단이 표방한 '내면성', '진정성', '문학주의' 등의 레테르가 상업주의적 혐의와 함께 비판적으로 검토되었다.²⁵⁾ 셋째로, 1990년대에

1위), 『경향신문』, 1994.11.3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113000329113001&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4-11-30&officeId=00032&pageNo=13&printNo=1527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24)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조윤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 김영현, 박일문,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6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허민, 「후일담의 역사와 '운동권'의 글쓰기」, 『구보학보』 제37호, 구보학회, 2024; 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25)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집,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조연정,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 - 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담론」, 『상허학보』 제53호, 상허학회, 2018; 조연정,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 - 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4

이러러 비로소 현시된 여성문학 담론의 세부가 자세히 논의되는 한편,²⁶⁾ 그것이 포스트모더니즘, 생태주의, 퀴어 이론 등의 인접 의제, 문화 연구라는 학술 영역, 그리고 PC통신이라는 매체적 조건과 교차하는 장면이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²⁷⁾ 이처럼 1990년대 한국문학 전반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다방면으로 축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²⁸⁾ 동시기 엄존했던 한국 소설의 음모론적 경향성은 다만 대중문학의 영역에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되어 독립적으로 논의되지 못했다. 1990년대 발흥했던 음모론 소설의 구체적 전개 양상이 앞서 대별했던 세 가지 연구 영역 모두에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독립 연구의 부재는 그 자체로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8;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 - 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제5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26) 천정환,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 1990년대 한국 문학장의 재편과 여성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제11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5;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 - 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최가은, 「여성-문학, 자기이론적 글쓰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27)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 - 송경아와 듀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1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백종륜, 「1990년대 이남희 소설의 희망론: 생태주의와 퀴어/페미니즘의 교차점을 모색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2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노태훈, 「1990년대 한국소설과 소수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김보경, 「1990년대 『녹색평론』의 생태 담론의 형성과 이론적 기반」, 『여성문학연구』 제5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안세진, 「1990년대 한국 문학 비평의 '폐배할 수 없는 구조' -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적 근대성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상허학보』 제72호, 상허학회, 2024.
- 28) 1990년대 한국문학 연구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로는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 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제66호, 상허학회, 2022를 참고할 수 있다.

199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음모론적 상상력에 주목하였던 당대 비평으로는 서영채와 류보선의 작업을, 주요 연구로는 한만수 그리고 안혜연의 작업을 들 수 있다. 서영채는 1990년대 초반 김진명, 이인화, 이명행 등의 소설에 나타난 음모론적 패턴을 “대중소설의 양식이 확보한 새로운 흥미의 원천”으로 평가하면서도 그것을 시대상과 연결지어 징후적으로 독해하기보다는 개별 작품의 통속성과 보수성을 비판하는 선에서 같음한다.³⁰⁾ 류보선은 음모론의 서사를 채택한 일군의 소설이 1990년대적 상황에서 ‘적’에 대한 치밀한 탐구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평하는 한편, 해당 작품들이 새로운 시대정신을 탐색하는 대신 대부분 현실 문제에 대한 통속적 봉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다.³¹⁾ 한만수는 19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의 오락성을 ‘성묘사의 후퇴’, ‘힘의 이데올로기’, ‘과거회귀’와 같은 키워드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텍스트들에 반영된 시대적 맥락을 읽어내고자 하지만, 이상의 소설들이 끼칠 “부정적인 대중 교육적 영향력”에 치중한 나머지 이를 타개해야 할 위기의 국면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³²⁾ 그러한 측면에서 김진명과 이명행의 소설에 나타난 음모론적 상상력을 당대 사회/정치상과 결부지어 치밀하게 읽

29) 본문 각 장의 내용을 선취해서 말하자면, 그것은 각각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1990년대 문학이 ‘지금-여기’의 현실과 관계 맺는 과정에서 후일담의 내성적 주체성이 아닌 대안적 주체성의 형태는 발견되지 않았는가? (2) ‘문학주의’라는 레테르 뒤편에 놓인 대중성에 대한 소구는 구체적으로 대중문학의 영역으로부터 무엇을 차용함으로써 시도되었는가? (3) PC통신 문학에서 펼쳐진 ‘소수(자)적 상상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사 관습 위에서, 무엇을 패러디하며 실현되었는가?

30) 서영채, 「음모, 장편소설의 새로운 화두」, 『상상』 1993년 겨울호, 19-24쪽.

31) 류보선, 「거대한 ‘적’의 발견과 소설적 움직임」, 『문학사상』 1993년 11월호, 274-287쪽.

32)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 『소설 동의보감』,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209쪽.

어낸 안혜연의 최근 연구는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혜연은 이들 소설에 전면화되고 있는 민족과 국가를 둘러싼 음모적 표상을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처한 위기와 고통의 맥락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탈냉전과 세계화의 자장 속에서 보수화되고 있었던 ‘민족주의’ 담론의 당대적 벡터를 조망한다.³³⁾

본고는 1990년대 발흥한 일련의 ‘음모론 소설’들이 동시기 현실과 조응하는 1990년대 문학의 한 양상으로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음모론이라는 틀을 통해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포괄한 1990년대 한국문학 장(champ)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인지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2장에서는 당대 최대의 베스트셀러였던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와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993), 그리고 유사한 소재를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데 실패한 이명행의 <황색새의 발톱>(1993)을 통해 1990년대 초반 대중문학 장에서 등장한 국가주의 음모론 소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작가세계 문학상 제 2·3회 수상작인 장태일의 <49일의 남자>(1993)와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1994)를 통해 당대 유행했던 음모론적 상상력이 ‘장편소설 공모전 봄’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순수문학 장의 상업적 욕망과 조우하는 결정적인 풍경을 조망한다. 4장에서는 송경아의 <유괴>(1994), <송어와 은어>(1994) 그리고 듀나의 <스핑크스 아래서>(1998), <꼭두각시들>(2000)을 경유하여 컴퓨터와 PC통신, 그리고 정보화라는 물질 토대의 발본적인 전환 속에서 나타나는 음모론 소설의 새로운 형태를 주목하고자 한다.

33) 안혜연,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주의 -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2. 대중성을 얻은 음모론 서사, 그 이면의 이데올로기

음모론적 상상력이 반영된 일련의 소설들은 같은 시기 문학 장의 주류로 등장한 ‘후일담 소설’과 대비되는 면모를 보여준다. 여기에서의 후일담 소설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역사적 교체기에 등장하여 1980년대 현실에 대한 회상과 기억을 다루는 일군의 작품들을 지칭하는데,³⁴⁾ 이들은 “90년대적인 환멸의 직접적인 표현”³⁵⁾으로서 “이전 좌파의 정치적 논리에 대한 성찰을 제기”³⁶⁾하며 양적으로나 담론적으로나 1990년대 문학의 중추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주로 자전소설의 형태를 빌려 과거 몸담았던 ‘운동권’ 시절을 회고하는 후일담 소설의 고유한 벡터가 1990년대 한국문학장에서 이른바 ‘내성적(內省的) 주체’라고 명명될 수 있는 특유한 인물형을 탄생시켰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80년대에 나타난 “정치적인 변혁에 대한 집단적 열의로부터 한발 물러나 이제 그 성취와 한계 모두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식”³⁷⁾과 함께 사적이고 동시에 세대적인 토로(談)의 형태로 진행된 후일담 소설은 ‘개인’, ‘내면(성)’, ‘진정성’과 같은 용어와 결합하며 1990년대 이후 이어질 한국문학의 모습을 예견하기도 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당시 대중문학 장에서 생산·유통되고 밀리언셀러로 등극하며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었던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나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은 후일담 소설의 내성적 주체와 대비되는 독특한 주체의 형상을 그려낸다. 이 두 소설이 공통적으로 기대고 있는 음

34)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993, 566-568쪽.

35) 서영채, 「소설, 모색과 모험의 도정」, 『창작과 비평』 1994년 봄호, 130쪽.

36)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6』, 시공사, 2005, 43쪽.

37) 허민, 앞의 글, 95-96쪽.

모론의 내러티브는 현재의 위기와 고통에 대응하는 인지적 이론(論)으로 기능하며 주체의 적극적 행위성을 촉발한다.³⁸⁾ 이들 소설에서 음모를 파악하고, 추적하고, 저지하는 등장인물의 강한 행위성은 무엇보다 1990년대 한국이 처했다고 상상되는 국가적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침탈되었던 국익이나 부재하였던 국가권력은 상상적으로 복원되기에 이른다. 요컨대, 당시 주류 문단의 후일담적 흐름과 대비되는 지점에서, 음모론적 상상력에 기반한 일련의 소설은 성찰이 아닌 확신을, 개인이 아닌 국가를, 일상이 아닌 위기를 서사 전면에서 내세우며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경사되는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신문기자 권순범을 주인공으로 하여 유신정권 말기 한국의 핵물리학자 이용후 살해 사건의 음모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는 김진명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1993, 이하 〈무궁화〉)³⁹⁾는 추리소설의 플롯과 음모론적 상상력을 결합한다.⁴⁰⁾ 통상적으로 추리소설은 “탐정, 범인, 희생자” 등의

38) Mark Fenster, *Conspiracy Theories : Secrecy and Power in American 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p.123.

39) 김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해냄, 1993. 이후의 인용에서는 권호수와 쪽수만 밝힌다.

40) 이전의 비평·연구에서 〈무궁화〉는 대체로 통속적 대중소설이라는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독해되어왔다. 서영채는 반일과 반미를 중심으로 한 애국적 서사가 갖는 통속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서영채, 앞의 글, 「음모, 장편소설의 새로운 화두」, 19-20쪽) 김경원과 한만수는 힘의 논리와 폭력 옹호로 왜곡된 민족주의의 상을 비판했다. (김경원, 「이념의 상실과 민족주의의 왜곡」, 『민족문화사연구』 제8호, 민족문화사학회, 1995, 376-379쪽; 한만수, 앞의 글, 205-206쪽) 진중권 역시 소설에 전면화된 ‘대립적 민족주의’를 비판하며 그것이 “대한남아”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남긴 바 있다.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2』, 개마고원, 1998, 150-154쪽.) 류보선은 〈무궁화〉가 상정한 문제의식 자체는 긍정하지만 소설이 이를 주인공 순범의 영웅성으로 환원시켜 해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류보선, 앞의 글, 284-285쪽.) 한편, 상술한 안혜연의 연구는 〈무궁화〉가 지닌 정치적·문화적 소구력을 민족주의 담론 및 남성성의 변동에 초점을 맞춰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의 관점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안혜연, 앞의 글, 71-72:81-84쪽.)

인물 유형이 등장해 “불가사의한 범죄(대부분 살인)의 발생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 플롯으로 삼는 이야기”⁴¹⁾를 일컬으며 “조사의 스토리”와 “범죄의 스토리”의 이중구조를 지닌다.⁴²⁾ 추리소설은 크게 ‘탐정 중심형’과 ‘범죄(자) 중심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탐정 중심형이 셜록 홈즈 류 탐정의 이성적 추리를 중심으로 하는 반면, 하드보일드 소설이나 사회파 추리 소설로 대표되는 범죄(자) 중심형은 범죄의 전말과 의미를 서사의 중심에 배치한다.⁴³⁾ 이런 점에서 <무궁화>는 주인공 권순범의 모험을 통해 밝혀지는 범죄(이용후 피살 사건)의 진실을 중심에 두고 있는 ‘범죄(자) 중심형 추리소설’의 특징을 보인다.⁴⁴⁾ 그러나 소설에서 폭로되는 범죄의 전말은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범죄를 넘어 미국과 일본이 개입되어 있는 국제적 음모의 스케일까지 확장된다. 이에 대해 프레드릭 제임슨은 음모론 소설에서 음모를 추적하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사회형사(social detective)’의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형사는 고전적 추리소설처럼 개인의 범죄 사건을 추적하는 대신, 개인의 배후에 음모의 실체로서 특정한 집

41)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19쪽. 여기서의 탐정은 “직업으로서의 ‘사립탐정’이 아니라 “범죄를 조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 전반”을 가리키며, “경찰, 검사, 기자, 소설가”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같은 글, 24쪽.)

42) 츠베탕 토도로프, 「탐정소설의 유형」,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50쪽.

43) 박유희, 앞의 글, 24-25쪽. 안혜연은 탐정 중심형과 범죄(자) 중심형을 각각 탐정소설과 범죄소설로 칭하며 이를 추리소설의 하위분류로 파악한다. (안혜연, 「1970~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16쪽.)

44) 안혜연에 따르면 한국문학사에서 추리소설은 1974년 김성중의 『최후의 증인』을 기점으로 분명한 대중성을 확보했다. 추리소설 선집의 번역과 일간지·스포츠신문에서의 추리소설 연재는 당대 불었던 “추리소설 붐”을 집작케 한다. 197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은 대중문화 장르의 분화를 촉진하여 “지적 오락”으로서 추리소설이 대중적 독자층을 확보하는 토대가 되었다. (같은 글, 2-4쪽.) 그런 점에서 1990년대 초반의 음모론 소설의 상업적 성공은 일정 부분 추리소설이 확보하고 있었던 대중성에 의존했다고 할 수 있다.

단의 존재를 상정한다. 이때 음모 추적의 주체는 주위의 정보를 발빠르게 수집하여 진실을 추구하는 탐정으로서의 행위성을 강하게 드러냄으로써 서사의 동력을 확보한다.⁴⁵⁾

〈무궁화〉의 직선적인 음모 추적의 서사를 뒷받침하는 것 역시 권순범의 적극적인 행위성이다. 그는 음모의 실체를 추적하기 위해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쉴 새 없이 이동하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다. 여기에는 편지나 전화 등의 다양한 소통 수단이 동원되며, 그 만남의 대상 역시 경찰, 검사, 언론인, 과학자, 정치인에 나아가 대통령까지 포괄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을 통해 권순범은 추적의 장애물을 돌파할 새로운 단서를 발견하고 학습의 의지를 강화하며 점차 박정희-이용후의 핵 개발과 관련된 음모의 중심으로 접근한다. 본래 “몸으로 때우는”(1:39) “망나니 기자”이자 “느물느물하고 변죽이 좋”(1:17)은 성격으로 설정된 권순범은 그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음모가(conspirator)들을 저지하기 위해 격투와 살인까지도 불사할 만큼 강한 행위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그는 안기부장과 대통령의 무한한 신임을 얻어 최종적으로 국내/외 안보 전문가를 능가하는 위상을 얻게 되는데, 이를 통해 그는 기자의 추진력에 더해 1990년대 한국이 처한 국제 정세와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안목까지 겸비한 ‘엘리트 지식인’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여기서 사회형사 권순범이 추적하는 음모의 요체란, 미국 CIA의 계략으로 이용후와 박정희가 암살되었으며 여전히 안기부와 검찰 등 한국의 권

45) 프레드릭 제임슨, 『지정학적 미학』, 조성훈 역, 현대미학사, 2007, 73-74쪽. 이러한 탐정의 강한 행위성은 서사의 동력을 확보하고 “음모의 정형화된 형식”을 제공하지만, 그의 “인식론적 특권”이 음모에 의해 잠식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부터는 해당 탐정이 갖는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입장이 문제시될 수 있다. (같은 책, 73쪽.) 그러므로 권순범과 같은 〈무궁화〉의 음모 추적 주체는 (범죄(자) 중심형) 추리소설과 음모론 소설의 이중구조 속에서 독해되어야 한다.

력 기관 곳곳에 미국의 사주를 받는 세력이 남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암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혜연의 연구가 적실히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무궁화>가 음모론의 상상력을 빌려 표방하고 있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는 이전 1970-80년대의 민족/민중문학론이 주창하였던 분단 극복의 대의를 중심으로 한 민중적 민족주의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보수의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다.⁴⁶⁾ 1990년대 이후 강대국 사이에서 경제적·외교적으로 경쟁 상태에 놓인 남한의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을 인격화된 적대자로 설정하는 것이다.⁴⁷⁾

이때 <무궁화>는 인격화된 음모가의 형상을 드러냄에 있어서 ‘반미’보다 ‘반일’을 강조한다. <무궁화>에서 한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있는 직접적인 배후는 미국이지만, 소설 위에서 미국인은 구체화된 적의 형상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작중 미국에 대한 적대는 김종휴 청와대 안보특보나 최영수 부장검사와 같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매국노”(2:104)의 형상을 통해 우회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오히려 김진명이 음모론의 증핵에 배치하는 인격화된 음모가는 일본 우익 세력이다. 일견 이용후와 박정희에 얽힌 핵개발 음모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들은 실상 야쿠자를 통해 한국 조폭 세력과 결탁하여 마약을 공급하는 계락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가 아니라 당면한 현재의 실제적 위협으로 나타나며,

46) 안혜연, 앞의 글,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주의 -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90쪽.

47)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냉전 종식 이후 소련, 중공 등 전통적인 ‘적’으로 상징되던 국가들 대신 세계의 다원적 자유무역 질서 속에서 모든 국가가 대등한 ‘적’으로 상징된 상황이다. 후술할 <황색새의 발톱>에서도 반복되는 바, 1992년 일본 우익 단체의 반한 시위와 PKO 법안 통과 등 일본의 군사대국화라는 흐름과 우루과이 라운드(UR)로 상징되는 세계 질서 속 배후 조정자로서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음모론적 상상력을 빌려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극우 세력의 거두인 ‘가네마루’는 미국만큼 한국 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려진다.

이러한 작품의 반일주의적 색채는 후반부 국방부의 청탁으로 권순범이 작성한 전쟁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에서 집약적으로 표출된다. 1999년의 한반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해당 시나리오에서 일본은 남북 경제 동맹 체결 이후 만주와 시베리아 등 동구권 지역 개발에서 한국이 약진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한국의 산업 기반을 초토화하기 위해 전쟁을 결심하는데, 이때 앞서 퇴장했던 가네마루의 형상은 다시 ‘테라우치’라는 이름의 방위청 장관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테라우치는 엔경제블록과 대동아공영의 사상을 주창하면서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되는 남한의 산업기반을 선제 공격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렇듯 소설에서 일본의 극우 세력은 한국의 핵개발을 방해해온 미국의 음모가 저지된 이후에 비로소 그 음모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으로 상상되며, 이에 대항하여 남한은 북한과 협력하여 비밀리에 개발해온 핵폭탄을 발사하면서 일본의 최종적 항복을 이끌어낸다.

소설이 전면화하는 이런 식의 반일주의적 민족주의는 식민지 시기부터 이어지는 반일 감정에 호소함으로써 모종의 대중성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그 배면에서 이와 같은 음모론적 플롯이 최종적으로 ‘국가’를 경유해서만 구성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요컨대, 미국으로 상징되는 초국적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반감은 서사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재편된 국제 질서를 민족의 렌즈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대상으로서 국가 대 국가로 상상되는 명확한 적대의 구도 위에 위치지어진다. 바야흐로 〈무궁화〉에 이르러 반일 민족주의는 국제화 및 신자유주의화라는 맥락 속에서 ‘대한민국’을 통해 민족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에 대한 추가적인 성찰과 지양이 중단됨으로써 이와 같은 민족주의가 자연스럽게 국가주의와 공모하게 됨은 물론이다.⁴⁸⁾

그렇기에 〈무궁화〉가 몰두하는 핵전쟁의 비전은 그 근원에 강력한 권력자와 그가 만드는 강력한 국가에 대한 요청을 전제한다. 작중 이용후는 독재에 비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애국심 때문에 박정희와 손을 잡는데, 김진명은 박정희와 이회소(작중 이용후)가 주고받은 편지와 이회소의 일기를 직접 인용하면서 이를 국가를 위한 지식인의 영웅적 결단으로 의미화한다. 유신이 “[외세에] 의존하던 시대에 종막을 고[하]”(2:88)기 위한 자신의 진정성 어린 결단이었다고 주장하는 박정희의 편지를 읽으며 이용후는 “박 대통령이 유신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라도 나를 낳고 나를 길러준 조국의 현실을 내가 배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2:90)라고 자문한다. 소설에서 이와 같은 이용후의 일기를 읽으며 “벽차오르는 감동을 진정시[키]”(2:91)지 못하는 권순범 역시 두 사람 못지않은 애국심과 민족의식으로 가득 차 있다. 작중 남성인물 사이에서 전염되는 이러한 자의적인 ‘전율’은 〈무궁화〉가 박정희를 실체화하여 그의 인간성, 결단, 애국심 등을 감동적인 것으로 재창조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권력자의 결단을 통한 국방력의 증대라는 〈무궁화〉의 이상은 권순범이 현직 대통령에게 박정희와 같이 “진정한 민족의 길을 가라”(2:277)고 종용하는 장면에서 비로소 현실화된다. 대통령이 권순범의 긴 설득 끝에 “역사의 무게”(2:285)를 감당하고 핵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시점에 그와 박정희는 사실상 구분되지 않는다. 이때의 문제는 〈무궁화〉가 국가의 기능을 국방력의 차원으로 환원한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국가가 오로지

48)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제128호, 역사비평사, 2019, 341-343쪽. 이용기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족주의가 정치적 입장을 가리지 않고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과 결합되어 ‘대한민국 민족주의’화되는 형태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국가/국민/민족주의는 구별될 수도 있지만, 이들은 모두 내셔널리즘이라는 공유점을 갖는다. 더구나 ‘대한민국 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을 매개로 ‘대한민국 국가주의’와 공모할 가능성도 있다.”(같은 글, 343쪽.)

영웅적 지도자의 결단으로만 소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 있다. 그 과정에서 음모의 실체에 다가섬으로써 구성되는 권순범의 사회형 사적 성격 역시 최종적으로 그것의 거울상에 다름 아닌 “하나의 전체적인 집단상”⁴⁹⁾에 복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라지는 매개자’이다. <무궁화>에는 홍성표와 앤더슨 정이라는 독특한 인물군이 등장하는데, 둘의 공통점은 이들이 음모 추적에 있어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 뒤 서사에서 퇴장한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경계인’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앤더슨 정은 권순범이 방미했을 때 만난 한국 출신의 언론인으로, 이용후 박사의 죽음에 CIA가 개입되었다는 정보를 권순범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서사적 역할을 한다. 동시에 그는 박정희 정권 때 미국에 머물면서 반독재 운동을 펼친 이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스스로를 코스모폴리탄으로 정체화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국제정치적 식견과 정보력에도 불구하고 권순범이 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이방인으로서의 외로움과 고국에 대한 향수이다.

스스로 한국 출신이란 걸 밝히면서도 코스모폴리탄이란 사실을 애써 고집하는 앤더슨 정의 태도에는 헤아릴 수 없는 모순이 감춰져 있는 느낌이였다.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국제무대의 경쟁 속에서 언론인으로 입신하기까지, 그가 겪었을 우여곡절을 짐작해보면 그의 처신을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였다. 그러나 앤더슨 정의 외로움을 읽어내기 시작하면서 순범은 애당초 선망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마음을 바꾸어 점차 연민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 아무리 코스모폴리탄이라 하더라도 조국이 귀국을 거절하여 찾아가고 싶을 때 찾아갈 수 없는 형편이 된다면 살아가는 일에 무슨 신바람이 나겠는가? 앤더슨 정은 그만큼 외로운 것이다. (1:274)

49) 프레드릭 제임슨, 앞의 책, 『지정학적 미학』, 74쪽.

여기서 작가는 권순범의 목소리를 빌려 코스모폴리탄이란 허상이며 결국 개인에게는 민족과 국가, 정확하게는 “조국”이 주는 정체성과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역설한다. 앤더슨 정이 펼쳤던 반독재 운동의 이력과 그가 거둔 “국제무대”에서의 성공까지 무화시킬 만큼, 그에게 조국의 그림자는 거대한 것으로 묘사된다.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음모론 서사의 선악 이분법 하에 등장인물이 갖고 있는 경계성은 일종의 결함으로 인식되어 <무궁화>의 외부로 빠르게 추방된다. 그런 점에서 경계인은 배타적 국가주의에 근거한 음모론의 작동 방식을 노출하는 증상적 존재로 보인다.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993)⁵⁰⁾은 <무궁화>에 대한 역사소설적 짝패로 보일 만큼 유사한 음모론 서사를 보여준다. <영원한 제국>은 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추리소설의 형식뿐 아니라 <소설 동의보감>의 성공 이후 동시기 상업적 장르로 각광받던 역사소설의 형식까지 취하고 있다.⁵¹⁾ 이와 같은 대

50) 이인화, 『영원한 제국』, 세계사, 1993.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51) <영원한 제국>은 그간 역사소설과 추리소설의 키워드를 경유하여 주로 논의되어 왔다. 우선, 남인 중심의 선비 정신을 표방하면서도 편협한 사료 검토에 따른 역사의식의 부재로 인해 “권력의 정당성론”으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출된 바 있으며, (박광용, 「소설 『영원한 제국』: 풍부한 상상력·빈곤한 역사의식」, 『역사비평』 제25호, 역사비평사, 1993; 설준규, 「소문난 잔치의 먹물거리: “세계관의 대립”?」, 『창작과비평』 1993년 겨울호.) 포스트모던 역사소설로서 ‘정조독살설’이라는 시각을 통해 주류적 역사 해석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고 보는 관점 역시 존재한다. (김정자, 「역사 다르게 읽기, 그 허와 실에서 본 소설 <영원한 제국>」, 『현대소설연구』 제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다른 한편으로, 기존 추리소설의 문법을 깨고 주인공(이인화)이 탐정이 아닌 형식을 취했으며, 서사 구성에 있어 역사적 배경을 적극 활용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이은자, 「역사추리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적 가능성」, 『대중서사연구』 제3권 1호, 대중서사학회, 1997; 오혜진, 「역사추리소설의 진원지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제67집, 중앙어문학회, 2016.) <영원한 제국>이 일종의 ‘반추리소설’로서 목적론적 진보 개념으로부터 이탈하려 시도했지만 결국 작가의 수구적인 가치관이 이를 상쇄하였음을 지적하는 논의 역시 제출된 바 있다. (황국명, 「인식과 존재의 틈바구니」, 『문학동네』 1997년 여름호.) 본고는 장르적 관점에서 소설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 이상의 연구와 달리, 1990년대의 상황에서 <영원한 제국>의 음모론적 상상력과 그 저변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증상으로서 피력하고 있었던 의미에 주목한다. 이와 관련해 서영채와

증문학의 장르적 형식을 빌려 〈영원한 제국〉은 앞서 살펴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구현한다. 소설은 정조 24년(1800년) 1월 19일 새벽에 시작해 규장각 대교 이인몽이 자신의 동료인 검서관 장종오의 죽음의 배후를 추적하는 하루 동안의 과정을 그린다. 규장각 내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장종오 곁에서 이인몽은 ‘시경천견록고’라는 제목의 서책과 그곳에 옮겨 적힌 『시경』의 ‘치효(鷓鴣, 울빼미)’라는 시편을 발견하게 되고,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34)을 느끼며 그 배후의 음모를 직감한다.

작중 이인몽은 정약용과 합심하여 장종오가 살해된 증거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강한 행위성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모든 사태의 배후에 노론 세력이 있으며 이들은 분명한 악의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 음모론적 사고가 중추적 역할을 하며, “외곶으로 충성 하나만 생각하며 세상의 말들은 아랑곳하지 않는”(149)다는 성격적 설정, 그리고 “강보에 싸인 아이 때부터 노론이라면 궁흉극악한 천하의 악물로 알고 자라온 영남 남인”(95)이라는 정체성이 그것을 지탱한다. 이러한 ‘외곶’의 정신은 정조에 대한 무조건적 충심과 정조를 위협하는 신권(臣權)중심주의자인 노론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동전의 양면으로 취하게 되는데, 따라서 작중 이인몽의 추리는 자연히 음모의 배후에 놓인 노론 세력을 겨냥하게 된다. 이는 왕권중심주의 대 신권중심주의라는 적대 구조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선

한만수는 상술하였듯 〈영원한 제국〉의 복고주의적 성격을 비판한 바 있지만 그것을 텍스트 분석의 차원과 연결시키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 (서영채, 앞의 글, 『음모, 장편소설의 새로운 화두』, 23-24쪽; 한만수, 앞의 글, 199쪽.) 최근 제출된 이석의 연구는 1991년 번역되어 큰 인기를 끈 〈은하영웅전설〉과 〈영원한 제국〉의 영웅주의를 비교 분석하여, 전자가 보다 엄밀한 의미의 역사학적 관점을 도입해 거대담론으로서의 역사를 상대화했음을 주장한다. (이석, 「1990년대 한국의 『은하영웅전설』 수용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93쪽.) 이는 1990년대 대중 독자의 독서 양상을 세분화하여 그들의 정치적 무의식이 다층적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악이분법의 음모론적 도식을 따르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노론을 악으로 규정하는 이와 같은 음모의 서사는 음모 생산의 주체가 전도됨으로써 결정적 반전을 맞이한다. 이인몽이 추적하던 음모의 편린, 즉 장종오 살해 현장에서 노론 세력에 의해 찬탈되었다고 믿어지는 시경천견록(금등지사)이 사실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장종오의 죽음을 비롯한 모든 것이 노론 세력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정조의 계략이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영조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금등지사의 내용이 노론 세력을 궁지로 몰 것이라는 점에서, 음모의 중핵은 이제 노론 세력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위치한 정조라는 전제군주로 이동한다. 노론 세력은 오히려 음모의 실체를 추적하는 위치에 가까워지며, 그들은 “불안”(190)에 떨면서 정조의 음모를 중단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반전은 소설 속 이인몽의 행위성을 억제하지 못한다. 이인몽은 사태의 전개 속에서 노론과 다를 바 없는 정조의 권모술수, 나아가 음모의 일단을 예감하며 “충성, 충의 충절…… 인생의 성스러운 인과율이 이 뿌리째 흔들리”(215)는 불쾌감에 휩싸인다. 이어 같은 남인인 채이숙을 살해했다는 모함을 받자 “끔찍달짝할 수 없는”(227) 무력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몽은 자신의 근왕주의적 가치관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전제왕권에 기반한 일군만민(一君萬民)이라는 영남 남인의 유학적 세계관이 왕을 향한 무조건적 충정과 노론 세력에 대한 당파적 적개심으로 표출되면서 이인몽은 ‘진짜’ 음모의 실체에 더는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그를 납치한 노론의 무관 구재겸이 정조를 “무도한 폭군”이라 비난하자 이인몽은 “유신”의 당위성을 역설하며 급히 그의 말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음모의 전말에 대한 “중요한 시사”(283)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결말부 금등지사를 손에 넣은 이인몽은 그것을 정조에게 전

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구재검과 추격전을 벌인다. 그의 행위성이 가장 극대화된 이 추격 도중에 이인몽은 금등지사를 열어보지만 그것의 의미, 심지어 그것의 진위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절벽 아래로 추락한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잠시 인몽이 말한 <유신>이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우리는 그 <진보적>이라는 입헌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홍재 유신, 즉 정조의 절대왕정을 수립하지 못해서 망한 것이다. (...) 유신이란 주인에게 국가의 전체적인 권을 되돌려주어 체제를 일신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유신이 있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주인(민주)이라는 말은 일종의 지적 궤변으로, 결국 아무도 주인이 아니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대통령이란 <당신 뽑아 줄 테니 한번 잘 해보시오>하고 만든 헌법상의 통치권자이지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이인몽의 시대는 다르다. 정조는 명실상부한 국가의 주인인 것이다. (266-267)

<영원한 제국>이 수렴하는 권력지향적 근왕주의는 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최종적으로 긍정되기에 이른다. 위 대목에 나타난 작가의 목소리는 앞서 그것이 주로 역사적 배경지식을 해설하는 기능을 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해당 인용문에서 피력되는 작가의 정치관과 작중 이인몽이 갖고 있는 절대왕정에의 비전은 일맥상통하며, '유신'에 대한 긍정은 이후 이인화가 박정희 미화에까지 이르게 되는 궤적을 예시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노론의 음모라는 프레임 속에서 이인몽은 정조의 음모를 성찰할 수 없었고 그 자신의 가치관을 변화시킬 수 없었던 바, 이러한 무반성적 음모론이 결국 근왕주의를 국가주의로 치환하는 길로 내닫게 됨을 정조와 박정희를 겹쳐보며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영원한 제국>은 작중 음모 추적 주체에게 발생한 인지부조화의 순간을 무반성적인 음모론적 사고방식과

작품 외부에서 개입되는 작가의 목소리를 통해 봉합함으로써 앞서 〈무궁화〉가 반일주의적 민족주의를 경유해 보여주었던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확증한다. 이는 이 시기 대중문학의 음모론적 상상력이 흥미성 이전에 권위적 주장에 현저히 경도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이때 같은 해 문학과지성사에서 자유투고된 전작장편 원고로 출판된 〈황색새의 발톱〉(1993, 이하 〈황색새〉)⁵²⁾은 〈무궁화〉나 〈영원한 제국〉이 보여주는 음모론적 상상력에 공명하면서도 선악이분법의 형식을 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⁵³⁾ 〈황색새〉는 미국 상무부 소속의 관료 윌리엄 피그먼 살인미수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사건이 일본 대사관 소속 가케 히데키 참사관의 계략, 곧 테러 사건을 통해 남한 내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는 국제적 음모의 일부분이었음이 밝혀지며, 그 배후로서 히데키가 몸담고 있는 일본 내 극우 엘리트 조직인 '황색인해방연합단(황련단)'의 실체를 추적하는 것이 〈황색새〉의 열개이다. 황련단은 식민지 시기부터 시작되었던 일본의 대동아 공영 구상을 이끌고 있는 비밀 조직으로 현재 5000여 명의 요원을 동원해 아시아 각국에서 각종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다. 소설 속에서 황련단은 전형적인 음모 집단의 형상을 취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인물로

52) 이명행, 『황색새의 발톱』, 문학과지성사, 1993.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53) 이와 같은 〈황색새〉의 서술 방식 및 태도는 일본과 미국 사이에 위치한 남한의 불안한 경제적·군사적 입지를 객관적이고 정치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찍이 고평된 바 있으나, (문학과지성 편집 동인, 「이 책을 내면서」, 『황색새의 발톱』, 문학과지성사, 1993, vi쪽.) 한편으로 소설이 거대한 적 앞에 선 왜소한 민족 주체의 환멸과 허무에 경도되고 말았다는 비판적 평가 역시 제출된 바 있다. (류보선, 앞의 글, 280쪽; 안혜연, 앞의 글,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주의 -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93쪽.) 본고는 〈황색새〉가 표방하는 이와 같은 허무주의적 색채가 상이한 문학 장이 중첩된 결과물이자 앞선 음모론 서사의 맹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고 본다.

그러지는 히데키 역시 이중적이고 냉철한 음모가-악역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권유민은 JIC를 이끌고 있는 수뇌부 두 실세, 국장과 부국장의 시각차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 JIC 창설 당시 일본의 세계정경조사회의의 도움을 받았었다. (...) 그러나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미국 정보 기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다. (...) 일본은 JIC에 하드웨어를 제공했고, 미국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국장과 부국장의 시각차는 결국 JIC가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일본, 두 나라 파워 게임의 시험장이 되게 할 수도 있었다. (177-178)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색새>가 앞서 살펴본 소설들과 달리 인격화된 적을 상징하는 이분법적 국가주의로 흐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일까. 첫째로, 소설이 경제적 관점에 입각해 사태에 접근함에 따라 작중 ‘국가’의 존재감이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권순범을 앞세웠음에도 끊임없이 안기부와 청와대를 호명함으로써 국가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냈던 <무궁화>와 달리, <황색새>는 철저하게 전경련의 산하조직인 JIC를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JIC는 일본의 “세계정경조사회”를 본따 만들어진 기관으로 그 운영에 있어서는 미국 정보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일종의 사조직인 JIC는 소설 속에서 사실상 국가 기관의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 JIC는 현재 친미파인 국장과 친일파인 부국장 사이의 알력다툼으로 분열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경계심 고조라는 서사적 목적보다는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 두 나라 파워 게임의 시험장”이 되어버린 당대 남한의 축도를 보여주려는 의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그 과정에서 음모를 이끌어가거나 음모에 휩쓸리는 주체들도 경제적 이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컨대, 일본이 황련단과 같은 극우 조직을 앞세워

아시아 각국에 침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와 같은 군국주의적 발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논리에 의한 것이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기업체라는 발상은 기업의 논리가 국가의 논리를 대체한 UR 이후 세계화와 신자유주의화 담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 우익의 음모가 전제하고 있는 경제 논리가 반대편에서 한국 정부를 대체한 JIC라는 거울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황색새>의 일본은 반일주의적 표상을 넘어 객관적 현실 인식의 매개로 기능하는 것이다. 경제적 논리가 약화시킨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는 이념의 층위에서뿐 아니라 그것에 결부된 정념의 층위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발생시킨다.⁵⁴⁾

둘째로, 음모 추적 주체의 복수화 속에서 음모론 서사의 전형적 인물형과 변별되는 관조적인 추적 주체가 등장한다. <황색새>는 복수의 수사기관 및 정보 조직들이 히데키의 음모를 추적하는 구조를 갖는데, 그 과정에서 앞선 음모론 서사의 주인공들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김철규 등의 탐정형 인물만큼이나 사태를 관조하는 주체로서 JIC의 권유민 같은 인물도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된다. 전방에서 형사 김철규가 피그먼 살인미수 사건으로부터 황련단으로까지 연결되는 음모의 파편을 추적해 나간다면, 후방에 위치한 엘리트 관료 권유민은 그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휴민트를 동원해 수집한 더 큰 맥락들 속에서 종합한다. 이처럼 작중 권유민은 메타적 위치에서 남한을 둘러싼 미일의 정보전을 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때 그는 친미파인 국장과 친일파인 부국장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54) 이는 <무궁화>나 <영원한 제국>이 보여주었던 독재자와 강력한 국가에 대한 지향성이 <황색새>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로도 볼 수 있다. <무궁화>에서 반미반일의 기치를 내세운 자주적 민족주의의 표상이었던 독재자는 <황색새>에서는 친미적인 권력 집단의 일원으로 다분히 냉소적으로 기술된다.

취하려 노력한다. 이러한 형식적 중립성은 양측의 입장을 종합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에 대한 경멸을 내포한 양비론으로 흐르게 되며, 그 과정에서 음모의 전말을 둘러싼 소설의 서사적 긴장은 크게 감소한다.

그 결과 권유민은 결말부에 이르러 음모의 실체에 접근하여 그것을 폭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무기력”과 “자기혐오감”(408)에 사로잡히게 된다. 미국의 방조 하 일본이 아시아에서 세력을 넓혀가는 국제 질서의 흐름 속에서 황련단의 세력은 건재하며, 한국 정치권과 JIC는 이와 같은 친일 세력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깨달음이 되레 선연해진 것이다. 이와 같은 진실은 너무도 거대하여 그것에 대해 주체 차원에서 발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의 여지는 사라진다. 따라서 권유민은 음모를 추적하던 때의 적극적 행위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본래 자신이 위치했던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간다. 그는 앞서 친일파인 부국장에게 가졌던 민족적 적대감까지도 상실하며 JIC의 관성적 관료로 남는다. 이러한 회한과 고독의 정서는 앞선 소설에서 부각되었던 음모론적 주체의 강한 행위성에 부합하지 않는 내성적 주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말은 앞서 〈무궁화〉와 〈영원한 제국〉이 은폐하고자 했던 음모론의 중요한 전제를 노출한다. 즉, 1990년대 초 남한에는 ‘국가’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무궁화〉와 〈영원한 제국〉에서는 과잉된 국가주의 또는 인격화된 국가주의라는 권위적 형상을 요청했다면, 〈황색새〉에서는 거세된 주체로서의 권유민 또는 거세된 권력 기관으로서의 JIC의 모습을 통해 그 부재를 가시화한다. 결국 이들의 국가주의는 국가의 부재를 가리키는 환상적 표지로서,⁵⁵⁾ 이 시기 음모론 소설을 쓰게 만드는 동력이란 형

55) 슬라보예 지젝, 『나눌 수 없는 잔여』, 이재환 역, 도서출판 b, 2010, 240-243쪽. 지젝은 여기서 기표가 갖는 양면성을 설명한다. 기표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이미지를 부여하는

식적 민주화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 이후 ‘적’이 사라진 상황에서 오히려 사라진 것은 국가(권력)의 존재였다는 인식인 것이다.⁵⁶⁾ 그러나 이와 같은 상상력은 국가의 부재에 직면하여 - 그 주장의 강도는 다를지언정 - 결국 국가의 권위를 복원함으로써만 국제 정치의 냉혹함에 맞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보수성으로 경도되게 된다.

3. 순수문학과 음모론적 상상력의 혼종적 조우

1987년부터 1997년까지의 짧은 기간을 “문자문화의 마지막 전성기”⁵⁷⁾로 부를 수 있다면, 그 물질적인 토대는 바로 제도적 민주화 이후 출판 검열 완화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양적 팽창에서 들 수 있을 것이다. 1987년 11월 언론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출판 등록 허가제를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던 기존의 각종 규제 장치는 철폐/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예지의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⁵⁸⁾ 이와 같은 문예지의 양

환상의 형태를 띠는 동시에 그 본성상 ‘텅 빈’ 것이다. 환상은 기표의 텅 빈 상태를 은폐하면서도 환상이 지시하는 내용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표지하는 이중적 역할을 한다.

56) “자본의 축적논리로서 신자유주의는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초민족화 경향을 보이지만 이 자본의 통행이 자국 내 민중의 삶을 담보로 하는 것인 만큼 필연적인 사회적 공공성의 약화로 인하여 일어날지도 모를 민중적 저항에 대비하기 위하여 집단적 가상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39쪽.)

57)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505쪽.

58) 89년 한 해에만 872개의 정기간행물이 신규 등록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89년도판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84쪽.)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일간신문은 30종에서 112종으로 네 배, 주간지는 226종에서 2236종으로 열 배, 월간지는 1298종에서 3146종으로 세 배 가량 늘어났다.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협회 60년사』, 한국잡지협회, 2012, 114쪽.) 1987년 총 25종에 불과했던 문예지는 1988년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문학과 사회』의 복간/재창간을 필두로 1년 만에

적 팽창은 당대 부각된 출판권력의 맥락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종래의 '신춘문예(신문사)'에서 '문예지(출판사)' 중심으로 문단 헤게모니의 대대적인 이동을 야기했다.⁵⁹⁾ 이러한 관점에서 1990년대 초-중반부터 유수의 신진 문예지들이 자체적인 문학상을 제정했던 동시다발적인 현상은 이들이 '출판사-문학상-문예지'로 이어지는 일종의 문학적 재생산 제도를 구축하며 스스로의 문단 내 입지를 다지려 했던 전략적 포석으로 이해되어 왔다.⁶⁰⁾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1990년대 초-중반 제정되었던 다수의 공모전들이 그 대상을 '장편소설'로 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와 같은 장편 공모들이 하나같이 고액의 상금을 공모 요강 전면면에 내세우고 있었다는 점이다.⁶¹⁾ 이와 같은 높은 고료는 당시 문단에서 장편소설이 갖고 있었던 잠재

총 42종으로 17종이 증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89년도판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85쪽.) 이와 같은 증가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1993년에는 총 97종에 달하는 문예지가 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93년도판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76-80쪽.)

59) 이청, 「등단 시스템의 변화와 복수 등단의 의미」, 『로컬리티 인문학』 제19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270-271쪽. 1990년대 초반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한국 문단의 '문예지-출판사'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된 시점으로 이야기된다. 한국 사회가 전면적인 신자유주의 사회로 돌입함에 따라 문단 역시 빠른 속도로 산업화되었고, 이로 인해 행위자로서의 '출판 자본'이 갖는 입지가 강해진 것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이광호, 「문학 장치의 경계에서 - '문학권력론'의 재인식」, 『문학과 사회』 2015년 겨울호, 404-414쪽.)

60) 손아람, 좌담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살펴보는 문단 권력과 문학 제도의 문제」, 『실천문학』 2015년 가을호, 34쪽.

61) 1990년대 초-중반 제정된 장편소설 공모의 목록과 각각의 고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작가세계 문학상'(세계사)[2000만원]; 1993년 '국민일보 창간 5주년 '1억원 고료' 장편소설 공모'(국민일보)[1억원]; 1994년 '문학동네 소설상'(문학동네)[3000만원]; 1994년 '상상문학상'(살림)[2000만원]; 1995년 '해방 50주년 기념 장편소설 공모'(한겨레)[3000만원]

적 상업성을 방증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공모가 결국 출판 행위와 직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신진 출판 주체들이 자신의 자본력을 일종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1990년대 초 신진 문예지들의 장편 문학상 제정 현상은 자체적 등단 제도의 설립을 통한 문단 헤게모니의 구축보다는, 고액 상금을 내세워 매스컴에 스스로의 이름을 노출함과 동시에 즉각적인 출판이 가능한 장편소설 원고를 독점 확보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던 상업적 전략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⁶²⁾

이와 같은 1990년대 ‘장편소설 공모전 붐’의 시초는 바로 1990년 세계사가 제정한 ‘작가세계 문학상’이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못했지만, 1989년 창간된 『작가세계』는 당시 “문학의 상품 미학적 성격”⁶³⁾에 대해 누구보다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한국 문단의 지형도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⁶⁴⁾ 세계사는 당시 기준으로 파격적이었던 2000만원의 상금을 앞세워 1990년 제1회 작가세계 문

62) ‘장편소설 공모’의 형식을 통상적인 ‘단편 신인 공모’ 제도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로는 최진석, 「장편의 상상력과 그 전망 - 최근 문학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장편소설의 현황」, 『비평문학』 제79호, 한국비평문학회, 2021, 290쪽; 김요섭, 「문학상에 대해 말해야 할 것과 문학상이 말해주는 것」, 『문장웹진』 2021년 2월호; 장강명, 「당선, 합격, 계급」, 민음사, 2018, 43-62쪽; 단요, 「이미 존재하는 문학(들)」, 『대산문학』 2024년 가을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63) 이광호, 앞의 글, 406쪽.

64) 제호에서 드러나듯 『작가세계』는 그 시작부터 이문열, 김지하와 같은 ‘스타 작가’의 초상을 내세우며 지면의 약 1/3을 작가 특집에 할애하는 방식으로 권호를 꾸리는데, 이는 사진, 비평, 연보, 인터뷰를 이리저리 엮어가며 하나의 ‘문학 상품’으로서의 작가의 이미지를 가공하는 의식적 작업으로, 기실 1994년 창간될 『문학동네』의 전략을 부분적으로 선취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로는 조연정, 앞의 글,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 - 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유승희, 「작가’가 ‘문학’이 될 때: 『문학동네』의 작가 발굴 제도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8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학상 공모를 내는데, 잘 알려진 대로 1회 수상작인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가 출간과 동시에 표절 시비에 휘말림에 따라 해당 공모는 세간의 큰 관심을 끌게 되었다.⁶⁵⁾ 이듬해 진행된 2회 공모전에서는 장태일의 〈49일의 남자〉가, 3회에서는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가 당선되어 출판되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음모론적 내러티브를 자신의 요체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⁶⁶⁾ 앞서 살펴보았던 김진명과 이인화의 소설이 철저히 대중문학 장에서 생산되고 또 유통되었다면, 장태일과 김연수의 데뷔작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공통점은 당대 유행했던 음모론적 상상력이 소위 순수문학 진영 언저리에 위치해 있었던 신진 문예지의 상업주의적 욕망과 조우했던 하나의 독특한 풍경을 펼쳐 보인다.⁶⁷⁾

65) 〈신세대문학 「自己」가 없다〉, 『조선일보』, 1992.05.1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51600239113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5-16&officeId=00023&pageNo=13&printNo=2199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新進들 「日작가 模作」 논란〉, 『경향신문』, 1992.05.2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5250032911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5-25&officeId=00032&pageNo=19&printNo=14415&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문단에 日작가 「하루키熱風」〉, 『동아일보』, 1992.06.01.,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20601&mode=19920601%2F0002490942%2F1>. (검색일: 2025.02.17.); 〈젊은 소설가 또 표절시비〉, 『경향신문』, 1992.07.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7200032911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7-2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4471&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66) 앞서 다룬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이 1993년 7월 『작가세계』의 발행주체인 세계사에서 출판되어 큰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는 사실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다.

67) 본고에서 ‘순수문학’이라는 용어는 ‘생의 구경적(究竟的) 탐구’라는 프레이즈로 대표되는 전후 김동리 계열 문학이나, 반상업성과 반이념성을 스스로의 변별적 자질로 삼아 온 『문학과 지성』 계열 작품을 가리키는 협소한 의미가 아닌, 문단에서 유통되는 ‘제도

작가세계 문학상 제2회 수상작인 장태일의 <49일의 남자>(1993)⁶⁸⁾는 전형적인 1990년대식 후일담 주체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주인공 ‘나’는 만 서른 살의 독신 남성으로 대학 졸업 후 시사 기자로 잠시 일하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살고 있다. ‘나’는 대학 시절 학생 운동의 주변부에 있었던 인물로, ‘애학투련 점거농성’⁶⁹⁾ 당시 시위 현장에 있다가 연행되어 훈방조치로 풀려나기도 했으며, 대학신문에 발표했던 단편소설로 일종의 필화 사건을 겪은 적도 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이십대를 소모한 대학의 기억들, 전투적인 철학들과 세계에 대한 턱없는 희망들…… 모두가 사라졌다”(17)라는 구절에서 노출되듯 강한 상실의 정서이며, 맞서야 할 적이 없는 현실 속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구분”(16)이 모호해지는 상황 속에 놓인 ‘나’는 문득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지는 두려운 경험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 돌연히 사회의 이면에 놓인 거대한 음모 속으로 말려든다. 어느 날 ‘나’는 검은 양복과 짙은 선글라스를 낀 ‘사이보그’의 차에 태워져 남산 중턱에 있는 호텔에서 정체불명을 알 수 없는 노인과의 독대하게 된다. “나는 권력일세”(35)라는 짧은 인사와 함께 노인은 ‘나’가 2년 전에 헤어진 연인 서연이 41일 전에 실종되었음을 이야기하며

문학’ 일반을 가리키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기실 ‘순수문학’이라는 용어의 의미 값이 소위 민중문학 진영의 붕괴에 따라 ‘상업주의’와의 이차적 관계 위에 위태롭게 매달리게 된 것은 1990년대를 특징짓는 현상 중 하나이다. (안세진, 『1990년대 후반 『문학과 사회』의 변별성 연구 - 90년대 ‘결산’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74호, 한국현대문학회, 2024, 473-478쪽.)

68) 장태일, 『49일의 남자』, 세계사, 1993.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69)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건국대학교에서 일어난 점거농성 사건을 가리킨다.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농성 사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작가 장태일은 1990년 건국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학 재학 중 해당 사건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을 대신하여 서연을 찾아올 것을 지시한다. 이후 '나'는 서연이 과거 관계를 맺었던 연인들을 한 명씩 만나가며 서연의 행방을 되짚는 한편, 그의 기자시절 옛 동료와 조력하여 자신에게 그러한 명령을 내린 노인의 정체를 몰래 파헤치기 시작한다. 소설은 이처럼 주인공 '나'가 8일 동안 '서연의 실종' 그리고 '노인의 정체'라는 두 가지 미스터리와 그에 얽혀있는 거대한 음모를 추적하는 추리소설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건에 대응하는 '나'의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거대하고 조직적인 힘에 의한 완벽한 음해"(25)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것이 표층의 현실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53)에서 벌어지는 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1990년대의 대중적 정서를 풍미했던 음모론적 상상력은 소설에 명확하게 삼투되어 있다.

〈49일의 남자〉에서 '나'가 이러한 음모를 파헤치는 과정은 마치 "완결되지 않은 전염병"(156)과도 같은 "80년대의 권력"(155)의 실체를 마주하는 작업으로 그려진다. 소설 속에서 노인의 모습은 "정치·경제·문화 등 이 세계에서 인간들이 향유하는 모든 부면에 작용하는 권력"(157-158)의 추상적 양상이 하나의 인간으로 육화(肉化)된 것처럼 그려지는데, 1980년대 군부 권력집단의 중추적인 멤버 중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은 시대가 지나도 변치 않는 흑막으로 '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49일의 남자〉의 음모론적 상상력은 앞선 장에서 살펴본 소설들과 다르게 음모의 중핵에 군부 권력의 실체를 가져다놓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복무하지 않는 저항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소설은 형식적 민주화 이후에 제기되는 권력의 문제를 1990년대적인 맥락에서 새롭게 이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만 1980년대적인 권력이 노쇠한 형태로 존속하고 있는 연속적 상황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소설은 다분히 1980년대적인 문제

들을 반복하고 있으며, “고도자본주의”(218) 사회로 진입한 1990년대 한국의 풍경에 대한 새로운 세계 인식에 실패하고 있다. 특히 그러한 권력의 중층적 메커니즘이 결국 ‘정체불명의 노인’이라는 하나의 의인화된 이미지를 통해 과잉대표되고 있다는 점에서, <49일의 남자>는 대중의 기호에 영합하기 위해 음모의 증핵에 다소 복고적이고 손쉬운 이미지를 배치했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⁷⁰⁾

나는 이 시간과 공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두커니 서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워졌다. 생각해 보니 (...) 나는 무엇 하나 능동적으로 행동한 것이 없었다. 철저히 수동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다. 극히 짧은 순간에. 그리고

70)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노인’이 흑막으로 등장하며, 그것이 결국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여성’을 둘러싼 미스터리와 결부된다는 점에서 <49일의 남자>는 <양을 쫓는 아이>를 비롯해 1990년대 당시 유행했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들과 강한 유사성을 보인다. <49일의 남자>가 하루키의 소설과 유사하다는 지적은 제2회 작가세계 문학상 심사위원이었던 박혜경과 박완서의 심사평에서부터 일찍이 반복된다. (박혜경, 「환상과 현실의 상황을 넘나드는 능수능란함」, 『작가세계』 1993년 봄호, 317쪽; 박완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문장, 추리소설 기법」, 『작가세계』 1993년 봄호, 319-321쪽.) 이와 같은 심사평은 제1회 작가세계 문학상 수상작이었던 이인화의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를 둘러싸고 전개되었던 표절 논란을 상당 부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당시 세계사 편집부는 출판 직전 작가에게 하루키와의 유사성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작가는 이에 대해 “하루키소설을 다 읽었지만 가법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수상자로 선정된 뒤 원고를 고치면서 하루키와 유사하다고 지적받은 부분은 하나도 고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아도취적 신세대특징... “등단이전부터 「소설가」의식”>, 『조선일보』, 1993.03.16.,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28719930316m1153&set_date=19930316&page_no=15. (검색일: 2025.02.17.)) 1990년대 한국문학에서 대거 발견되었던 음모론적 상상력과 동시기 ‘하루키 열풍’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보다 섬세한 탐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논문으로는 김영찬, 「무라카미 하루키, 사라지는 매개자와 1990년대 한국 문학」, 『한국학논집』 제7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정종현, 「뒤늦게 도착한 ‘68혁명’-1990년대 한국문학과 ‘무라카미 하루키’, ‘밀란 쿤데라’, ‘다이 호우잉’의 번역 소설-」, 『한국학연구』 제58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등이 있다.

마치 그 모든 것을 내 나름의 선택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착각했던 것이다. 내가 원하는 원치 않든, 나는 이 시간에 여기에 와 있게 되는 거였다. 사태는 분명했다. (…)

나는 발가벗겨진 채 육체적인 학대를 받는 심정이 되었다. 노인은 정확한 정보와 분석으로 마치 인형을 조종하듯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31:37)

한편, <49일의 남자>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중문학 장에서 발표된 일련의 소설들과 변별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소설을 지배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음모론적 상상력이 결과적으로 서술 주체 ‘나’에게 어떠한 긍정적 행위성도 주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음모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재차 부각되는 것은 오히려 거대한 권력 앞에 선 주체의 왜소함이다. ‘나’는 사라진 서연의 행방을 찾는 임무를 진행하는 내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으며 자신이 행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 누군가의 손바닥 아래에서 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두려움에 시달린다. 이와 같은 두려움은 ‘나’가 접촉했던 서연의 옛 애인들이 순서대로 살해당하고 그 무기로 사용되었던 것이 ‘나’가 집에 몰래 숨겨놓고 있던 사제권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증폭되는데, 이 같은 주체성의 폐색이 역치를 넘어감에 따라 소설의 중반을 넘어가는 시점부터 ‘나’의 독백을 지배하는 정조는 허무주의적인 태도에 근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자신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을 한낱 ‘우연의 일치’로 치부하며 음모의 실체를 직시하기를 거부하려는 서술주체의 회피적인 태도 역시 소설 곳곳에서 발견된다. ‘나’는 자신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죽음들을 목격하며 지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질문하지만, 그런 ‘나’에게 사이보그는 그것들은 모두 서로 무관한 사건이며, “선생은

단지 재수가 없었을 뿐”(188)이라고 답한다. ‘나’는 그러한 사이보그의 대답이 결국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짐짓 “모두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건들일 뿐이다. 문제는 모든 것을 관련짓는 사고방식이다”(209)라는 혼잣말을 자기암시처럼 내뱉기도 한다. 이는 거대한 음모에 접근해 가고 있다는 자신의 직감을 우연으로 치부하며 그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불안 심리를 부정함으로써 권력에 의해 훼손된 주체성을 환상적으로 회복하려는 태도이다. 소위 ‘우연론(contingency theory)’⁷¹⁾으로 명명될 수 있을 듯한 이와 같은 회피적 태도는 결국 서술주체로 하여금 노인의 명령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지만, 최소한 ‘나’의 개인적 차원에서 그것은 하나의 구원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다.

음모에 대한 ‘나’의 몰두 자체가 추가적인 행위성을 촉발하지 못하고 허무주의적이고 순종적인 태도가 작품 전면에 대두됨에 따라, 소설 역시 본래의 서사적 동력을 잃고 전형적인 후일담의 구조 속으로 침잠한다. 중반부부터 ‘나’는 과거 자신이 서연과 떠났던 여행의 기억을 반추하는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그와 동시에 소설은 앞서 언급했던 1980년대 학생운동과 관련된 ‘나’의 일화 몇 개를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여 작품 내부에 병치시킨다. 이러한 회고들은 더이상 과거의 열정이 기능할 수 없는 1990년대적 현실의 몇 가지 단면을 후일담의 정서 속에서 환기하고 있는데, 이는 소설 전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모론적 플롯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며 소설의 서스펜스를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있다.

빈번하게 삽입된 회상으로 인해 발생한 서사적 지연을 벌충하기라도 하듯, 결말부에 이르러 소설은 급속도로 전개되며 서연과 노인을 둘러싼 음

71) Skip Willman, “Spinning paranoia: the ideologies of conspiracy and contingency in postmodern culture”, *Conspiracy Nation: The Politics of Paranoia in Postwar Americ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pp.22-25.

모의 전말은 순식간에 밝혀지게 된다. ‘나’와의 마지막 독대 장면에서 노인은 자신이 서연을 찾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녀가 자신으로 하여금 “헛된 야망과 그릇된 공명심”에 때문지 않은 “투명한 세계”(292)를 보게 해 줄 수 있었던 여성이기 때문임을 고백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계락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실행한 흑막이 사실 노인이 아닌 사이보그였으며, 서연 역시 실종된 것이 아닌 사이보그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⁷²⁾ 소설 마지막 순간, ‘나’는 사이보그를 찾아가 마침내 그에게 권총을 겨누지만 결국 총알은 발사되지 못하고 사이보그는 유유히 그를 빠져 나간다. ‘나’는 또다시 권력에 이용당하고 말았다는 절망에 흐느끼며 연옥과도 같은 “무채색의 공간”(313) 속으로 침잠하는데, 그 공간은 마치 1987년 이후 ‘나’가 깊은 허무와 상실감과 함께 스스로를 오랫동안 윤택했던, 오직 끝없는 회고와 반성만이 가능한 ‘후일담의 공간’과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 <49일의 남자>의 이와 같은 혼종성은 한편 이 소설이 수상했던 작가세계 문학상, 더 나아가 『작가세계』라는 신생 문예지 자체가 안고 있었

72) 그러나 음모의 최종 흑막이 노인이 아니라 사이보그였다는 이와 같은 반전으로 인해 현실에 잔존하는 권력의 문제를 ‘1980년대적 권력’으로 소급하여 이해했던 소설의 사상적 미비함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소설에서 사이보그는 어디까지나 노인의 충실한 심복으로 그려지며, 그에게 노인과 변별되는 세대적이거나 계급적인 정체성이 할당되지는 않는다. 한편, 소설은 노인을 비롯한 일련의 남자들을 사로잡은 서연의 영묘한 힘과 관련하여 던져진 복선들을 회수하지 않으며, 사이보그가 서연을 죽여야 했던 이유와 그러한 서연을 찾는 주체가 다른 누구도 아닌 ‘나’가 되어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찍이 소설의 ‘장르적 미진함’을 지적했던 다음과 같은 박완서의 심사평은 주목할 만하다: “『49일의 남자』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문장과 추리소설적인 기법으로 읽는 이를 조금도 지루하지 않게 마지막까지 끌고 갔다. 그러나 추리소설처럼 읽으면서 품었던 의문을 마지막에 가서 속 시원히 풀어주는 것은 아니다. 내가 혹시 실마리나 복선을 눈치채지 못하고 읽어 넘겼나 해서 군데군데 다시 읽어보는 수고까지 반복했지만 역시 마찬가지였다. 읽는 이의 상상력에 맡기려는 건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소린지 잘 모르겠다. (...) 조금 더 세심하게 손을 보아 완성도를 높였으면 싶다.”(박완서, 앞의 글, 320쪽.)

던 양가적인 입장에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49일의 남자>가 보여주고 있는 ‘사상적 미진함’과 ‘장르적 미진함’이라는 두 가지 한계는 도리어 주목해 볼 만한 것이다.

이와 달리 이듬해 발표된 제3회 작가세계 문학상 수상작인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1994)는 사뭇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다. 소설의 중심인물 ‘최민식’과 ‘송찬명’은 ‘바이러스 연구소’라는 이름의 번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사무소에서 “의식 바이러스”⁷³⁾라고 불리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중 그것은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집단의 사고를 일정한 행위 패턴으로 인도”(21)하는 정신적인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로 설명된다. 요컨대, 이들은 아우슈비츠나 광주 학살과 같이 집단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이해할 수 없는 권력의지나 욕망의 참극을 설명하기 위해, 특정 행위 집단을 집단적인 정신질환의 상태로 몰아가는 “집단 퍼스널리티”(31)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바이러스 연구소의 문제의식이 김연수 소설 세계의 원점에 놓인 ‘91년 사태’를 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있음을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1991년 강경대의 죽음 이후에 이어진 연쇄적인 분신 파동에 직면하여, 결코 이전 세대의 방식으로 이들의 죽음을 상징화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이들을 그냥 외면하거나 지나칠 수도 없다는 이데올로기적이고 또 윤리적인 폐색 상태가 1970년생 작가로서의 김연수의 세대적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지적은 그동안 꾸준히 이어져 왔다.⁷⁴⁾ 그러한 의미에서 <가면

73) 김연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 세계사, 1994, 17쪽.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74) 손정수, 「살아남은 자의 운명, 이야기하는 자의 운명」, 『작가세계』 2007년 여름호, 104쪽. 이후 발표된 산문에서 김연수는 자신이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를 쓰게 된 이유가 1991년의 충격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한다: “저는 1991년에 보고 들은 일들

을 가리키며 걷기>가 ‘음모론 소설’의 외피를 쓰고 전개하는 곡예적이고 때로는 위악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러한 논리들은 지나간 1991년의 죽음을 애도하고 다가올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진단해보려는 작가의 발버둥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의 음모론적 플롯은 1990년대를 지배하게 될 새로운 이데올로기의 향방을 점쳐보는 지극히 거대한 반성적 기획 위에서 구성된 하나의 사고실험인 것이다.⁷⁵⁾

현대의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사회는 다원화라는 반국가적이고 총체적인 장애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다원화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세분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중심사상의 결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정세분석에 의하면 20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본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끝이 날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지난 세기까지의 지도이념이 그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예상을 뜻합니다. (...) 아마 반국가주의나, 인간주의가 자유라는 탈을 쓰고 사회를 혼란시킬 것입니다. 또한 국가나 민족과 같은 추상적인 가치들이 무시당할 것이며 구체적인 가치들이 선호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의식변화를 우리는 좀더 순화시키는 쪽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 우리들의 노력은 그러니까 이러한 공공선의 노력에다가 경제적인 카테고리의 민족 개념을 덧붙인 것입니다. (121-122)

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라는 소설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문제의식이 이 소설로 나오게 된 건 신기하기만 해요.”(김연수, 『청춘의 문장들+』, 마음산책, 2014, 122쪽.) 세계관의 원점으로서의 ‘1991년’에 대한 작가의 소설적 탐구는 이후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2007)의 집필로 이어진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분석으로는 허민, 『강경대와 서태지: 91년 5월 투쟁의 소설적 재현과 저항의 대중문화화』,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9호, 한국현대문학학회, 2023, 338-342쪽을 참고할 수 있다.

75) 이문구 역시 심사평에서 이 지점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정보기관의 공작정치가 일시적으로 환상을 실현했던 어두운 과거사의 풍자적인 재구성을 통해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 그에 대신할 이념의 부재로 인하여 새롭게 꿈꿀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지배구조에 대한 예상문제의 제시로 읽을 수도 있다.”(이문구, 『허구를 반영한 현실개념, 가상을 반영한 허구』, 『작가세계』 1994년 봄호, 499쪽.)

소설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핵심적 중추에는 두 가지의 숨겨진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작중 ‘가칭파(假稱派)’로 불리는 기관이다. 해당 조직은 본래 정부의 하위 기관이었으나 소수의 자본가들과 손을 잡음에 따라 현재에는 “초(超)정권적인 독자기관”(119)으로 성장한 상태이며, 미국 다국적 기업의 후원 아래에서 한국 사회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정권의 교체를 지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싱크탱크로 서술된다. 다른 하나는 ‘제너럴 박파(派)’로,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제너럴 박’이라는 박정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방하는 가짜 지도자를 내세워 과거의 군부 권력을 복권한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들은 일본의 비밀 정치조직인 ‘신평파(神風派)’를 끌어들이 가칭파의 세력에 대항하고 있으며,⁷⁶⁾ 동시에 수많은 구세대 보수주의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소설에서 제너럴 박파가 ‘제너럴 박’으로 의인화된 상징적인 이미지에 의존하는 다소 복고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서에 의존하고 있다면, 가칭파는 ‘허구를 반영하는 현실 이론’이라고 불리는 특정한 이론을 유포하여 국민의 의식을 개조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다. 이는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이념적 대립구도가 사라진 1990년대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의식을 세계주의적 경제 논리에 부합하게 조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종의 “국민개조론”(115)으로 설명된다. 간단화하여 이해하자면, 현실과 허구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계 속에서 PC통신을 비롯한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기관이 유포한 가상의 선전/선동이 대중 개개인의 의식으로 전염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관념구조 전체를 개조하게 된다는 것이다.

76) 이는 앞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박정희가 핵개발을 통하여 일본 세력에 저항하는 애국지사의 형상으로 그려졌던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상력의 분기에도 불구하고,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는 결국 김진명의 소설이 그려하였듯이 반일 정서를 기본으로 하는 민족주의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식과 찬명은 바로 그들이 가칭파가 주장하는 ‘허구를 반영하는 현실 이론’의 핵심적인 결함을 알고 있다는 혐의로 국제적인 수준에서 전개되는 거대한 권력의 음모 속으로 빠져든다. 가칭파의 숨겨진 핵심 멤버이자 과거 민식과 찬명의 스승이기도 했던 선승(禪僧) ‘지산(知山)’이 자신이 정초한 이론의 내적 결함을 아는 핵심적인 인물로 들을 지명한 것이다. 이로 인해 민식과 찬명은 그들을 이용하여 이론의 결함을 보완하려고 하는 가칭파와 또 그 결함을 이용해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제너럴 박파에게 끌려다니며 각종 우여곡절에 시달리게 된다. 민식과 찬명 자신조차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허구를 반영하는 현실 이론’의 내적 결함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미스테리는 소설의 전반부를 이끄는 서스펜스로 작동하게 된다.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의 세계는 이처럼 지극히 이분법적인 음모론적 구조 위에 구축되어 있다. 제너럴 박파가 “근대세계의 과도한 이념을 신봉”(173)하며 군부권력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적인 정치적 지도이념을 고수하고 있다면, 가칭파는 그들이 주창한 탈근대의 맥락 속에서 “보다 탄력적인”(125) 경제적 지도이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전자가 상징하는 이데올로기가 친일적인 색채로 덧칠된 70년대의 민족적 권위주의라면, 후자가 상징하는 것은 친미적인 색채로 덧칠된 90년대의 초국적 자본주의이다. 소설은 핵심인물 민식과 찬명의 입을 빌려 양자에 대해 어느 정도 양비론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소설 속에서 희화화의 대상이 되는 쪽은 대부분 제너럴 박파이다. 제너럴 박은 작중 현실감 없이 시대착오적인 언사들만을 반복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묘사되며, 결말부에 이르러 그의 탄생을 둘러싼 전말이 밝혀짐과 동시에 그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졌던 더 큰 음모의 피해자이자 한낱 허수아비에 불과한 것으로 격하되기에 이른다. 이에 비교하였을 때 가칭파가 옹호하는 세계 시장질서

의 이데올로기는 1990년대의 시의적인 맥락에서 진지한 대안으로 다루어지며, 그들이 주장하는 ‘허구를 반영하는 현실 이론’의 시효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논쟁은 소설 전체에 걸쳐 참여하게 지속된다.⁷⁷⁾

소설은 이처럼 제너럴 박파와 가칭파로 대표되는 두 가지 상반된 이데올로기에 대해, 전자(민족적 권위주의)의 시효를 격하하고 후자(초국적 자본주의)의 문제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방향으로 1990년대의 현실에 대한 우회적 가치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는 1990년대의 사회적 모순의 원인을 ‘80년대적 권력’의 형상으로 소급하여 이해했던 <49일의 남자>와 비교했을 때 그 세계인식의 측면에 있어서 다소간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설은 이와 같은 이분법적 구도에 지나치게 천착함으로써 두 개의 이데올로기 각각에 대한 선택이 결국 ‘친일-친미’의 구도와 겹쳐지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예컨대, 소설 속 절대권력으로 묘사되는 ‘각하’(노태우)가 제너럴 박을 이용하여 일본의 신평파를 국내로 데려오는 소설 후반부의 서사에 이르러 이와 같은 이데올로기적 선택의 문제는 친일파에게 국가의 주권을 넘겨줄 것이냐의 문제로 단순화되고 있는데,⁷⁸⁾ 이는 앞서 살펴본 일련의

77) 이러한 비중상의 불균형은 그 자체로 징후적으로 독해되어야 하며, 이는 한편으로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의 주제의식을 “당시 ‘신세대’였던 70년대생들에게 강요된 사회적 가면”에 대한 세대론적 항변의 차원에서만 독해해온 기존의 작업이 소설의 문제성을 드러내기에 충분치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김정숙·최수이, 『갈등과 화해를 통한 성숙의 서사 - 김연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08쪽.)

78) 신평파의 일원으로 한국에 오게 된 두 인물의 이름은 ‘하시모토 도시키(橋本俊樹)’와 ‘오부치 미치오(小淵美知雄)’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4년 당시 자민당의 핵심 일원이었으며 이후 각각 일본의 82/83대, 84대 내각총리대신을 역임하게 되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설에서 그 정체가 베일에 가려져 있는 신평파의 최종 흑막의 이름은 ‘무라카미상’으로 제시되는데, 이는 명백히 무라카미 하루키의 존재를 키치적으로 환기하고 있다. 김연수는 소설 첫 부분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1991년 당시 하루키의 소설로부

국가주의적 음모론 소설과 동일하게 작품의 전체적인 문제의식이 반일 민족주의의 대중적 정서로 함몰될 위험성을 내포한다.

한편, 형식적인 측면에서 앞서 살펴본 <49일의 남자>가 소설 전면에 부각되는 허무주의적인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음모론적 플롯을 포기하고 후일담적인 구조로 회귀했다면,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는 차라리 자신이 만들어낸 음모론의 ‘과포화’로 인해 붕괴하는 것처럼 보인다.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소설이 다루고 있는 음모의 범위는 상기하였듯 일본과 미국이 참전하는 국제적인 수준으로까지 확장된다. 소설은 조서와 브리핑의 형식을 빌려 중간 중간 사건을 요약 제시하고(144-146;276-277), 전지적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설명하는 한편(173), 심지어 직접 도표까지 그려가며(231;238)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도우려 하지만, 애초에 일회성으로만 기능하는 단역들이 수십여 명을 넘어서고 내러티브 자체가 작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에서 그러한 사후적 조작은 무의미할 뿐이다. 인공지능(AI)으로 진화하게 된 ‘허구를 반영하는 현실 이론’의 데이터베이스가 일본에서 건너온 신풍파의 신도(神道) 이념에 맞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한다는 황당한 결말부의 전개에 이르러 소설의 구조는 완전히 붕괴한다. 전반부까지 소설의 서스펜스를 이끌어갔던 주제인 이론의 내적 결함 자체도 어느 순간 유아무야되며, 소설 마지막 대목 밝혀지는 결함의 진실은 소설의 내적 논리 속에서 어떤 구체성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로 즉각 폐기된다.⁷⁹⁾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는 메타적 구조를 통해 소설이 처하게 된 이와

터 받았던 영향력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9-10)

79) “그 이론의 결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 즉 세계를 재편하려는 모든 이론은 관념적이며, 그러므로 이상적이라는 함정이죠. 이상주의적이다 함은 곧 현실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311) 이와 같은 관념적인 차원의 언술이 소설에서 어떠한 반전이나 충격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같은 ‘과포화’ 상태에 대한 모종의 자기비판을 시도한다. 소설의 본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 사이에는 소설 밖 작가 ‘김연수’가 소설을 집필하며 그의 친구로부터 받았다고 이야기되는 네 편의 편지가 삽입되어 있으며, 작품이 끝난 이후에는 작중 등장인물들과 작가의 친구, 그리고 작가 김연수 자신이 참여하여 소설의 성패를 토론하는 가상의 좌담회가 이어진다. 플롯 외부에 놓인 ‘편지’와 ‘좌담회’라는 이중의 메타적 구조를 빌려 작가는 자신이 이와 같이 “거짓과 믿을 수 없는 품문”(96)으로 과포화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해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를 통해 김연수는 소설 속 모든 혼란과 키치가 사실 모두 메타적 차원에서 의도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소설에 노골적으로 전면화된 반일주의적 슬로건으로부터도 일정한 거리를 확보하고자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작가의 언사는 결국 소설적 실패에 대한 자기변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의 실패는 철저히 소설 내적인 이유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김연수의 소설을 평가함에 있어서 관건이 되는 문제는 메타적 복잡성의 부족이 아닌 음모론적 복잡성의 과잉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상의 메타적 구조는 소위 ‘순수문학’에 요구되는 소설적 깊이의 최저한도를 충족시키는 눈속임으로만 기능할 뿐, 소설 자체의 성패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이루지 못한다. 마지막 좌담회에서 김연수는 새로운 세대의 문학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본주의 문학”(348)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이 소설의 제목인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가 지칭하고 있는 것이 결국 “자본주의를 체화하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는 것”(351)임을 역설하지만, 이와 같은 저자의 의미화는 어디까지나 플롯 외부에서 주입된 것으로 내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설득력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신진 문예지 『작가세계』가 1990년대의 초입에 제정한 작가세계 문학

상 초기 수상작인 〈49일의 남자〉와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는 이처럼 음모론과 순수문학의 관성이 뒤섞인 혼종적 텍스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음모의 증핵에 군부권력의 인격화된 표상을 배치함으로써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부터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통해 비로소 포스트 냉전 시기 한국이 놓인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사유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들여온 음모론적 상상력에는 결국 ‘후일담’ 그리고 ‘메타픽션’이라는 순수문학적 의장이 덧씌워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그것은 본래의 잠재력을 상당 부분 사상한 채 다만 상업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한계를 보였다.

4. PC통신이라는 소수적 영토와 무화(無化)되는 ‘적’

1990년대는 정보화의 시대였다. 1994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초고속정보통신기반 종합추진계획’이 국가사업으로 공표됨에 따라 ‘디지털 혁명’은 시대정신으로 밀어닥치며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지형도를 뒤흔들어 놓았다.⁸⁰⁾ 이와 같은 ‘혁명’을 목도하며 1990년대의 기성 문학계가 보인 반응은

80) 같은 해 한국통신의 주도로 WWW(World Wide Web) 기반의 최초의 인터넷 상용 접속 서비스가 시작되었으며, 우편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체신부(遞信部)가 정보통신부로 개편되었고, 12월 빌 게이츠가 내한해 김영삼을 만났다. 당시 한국의 미래를 논하는 사설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혁명, 디지털 혁명, 정보 전쟁, 하이테크, 제3의 물결과 같은 키워드들은 정보화가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였음을 방증하며, 또 그에 대한 범국가적인 갈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세계碩學들의 現實진단과 우리의 活路 「하이테크」優位 확보 못하면 도태〉, 『매일경제』, 1994.01.17.,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01170009910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1-17&officeId=00009&pageNo=5&printNo=8647&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정보통신戰爭 (1) 「경쟁력 根幹」 먼저 붙잡자〉, 『매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1990년대 한국 사회에 불어 닥친 정보화라는 새로운 국면은 긍정적 모멘텀으로 의미화되기보다는 ‘문학적 응전’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파다했다.⁸¹⁾ 이와 같은 문단의 위기 의식은 글쓰기를 둘러싼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시대적인 감각과 무관하지 않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지식’이 ‘정보’로 치환되고 있다는 현실 판단에 의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관이나 강의실과 같은 물리적 공간을 경유하여 다소 배타적인 방식으로 전수되었던 고전적인 형태의 지식이 이제 모뎀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가상의 공간을 떠도는 정보들이 언제든지 복제되거나 조

일경제』, 1994.04.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042000099101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4-20&officeId=00009&pageNo=1&printNo=8734&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세계는 디지털 정보혁명 시대”, 『조선일보』, 1995.03.09.,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3090023910201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5-03-09&officeId=00023&pageNo=2&printNo=22964&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서울 온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은 「다양성」”, 『동아일보』, 1995.12.02.,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51202&mode=19951202%2F0002119660%2F1>. (검색일: 2025.02.17.); <세계지성과의 대화 (5) 정보혁명 동참못하면 국제사회 도태), 『매일경제』, 1996.01.29.,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6012900099107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01-29&officeId=00009&pageNo=7&printNo=934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81) 박대호에게 컴퓨터는 마치 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노동자를 소외시켰듯 지금-여기의 인간을 고립적 존재로 유폐시키는 장치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진정한 “대화적 양식”에 다름 아닌 문학은 인쇄 활자 매체만이 갖고 있는 특유의 반성성·집단성·재현성을 통해 응전할 것이 요청된다. (박대호, 「정보 산업 사회에 대한 문학의 응전 양식」, 『문학과 사회』 1991년 여름호, 629-630쪽.) 마치 “독재정부”처럼 인간의 고독한 사유를 가로막는 컴퓨터 시스템의 ‘음모’에 대해 개별 작가들이 상상력이라는 무기를 통해 대항해야 한다는 우한용의 발문에서는 어떠한 비장미마저 느껴진다. (우한용, 「컴퓨터 시대의 소설 환경」, 『소설과 사상』 1994년 봄호, 245-246쪽.)

작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곤 했는데, 이는 이후 ‘탈진실’이라고 명명될 디지털 디스토피아의 풍경을 예리하게 감각하고 있기도 하다.

지식을 대체한 정보의 조작 가능성에 대한 불안은 당시 펼쳐졌던 수많은 음모론적 상상력의 자양분이 되었다. 진실성을 보증했던 이념의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PC통신 게시판 사이를 떠도는 ‘풍문’뿐이라는 비관적 인식은 앞서 살펴본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에서도 한차례 포착된 바 있다.⁸²⁾ 내게 접속된 수많은 정보들이 어쩌면 누군가에 의해 교묘하게 조작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혹.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익명의 누군가가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통제하고 있으며 진실에 대한 접근권한은 오직 그들에게만 할당되어 있다는 상상. 이와 같은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짐에 따라 정보는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지 못한 자의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재화로 여겨졌으며, ‘정보-권력’의 구조로 재편된 1990년대 사회에 대한 당대적 불안은 소설 위에 음모론의 형태로 반영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앞서 살펴보았던 음모론적 플롯은 ‘충분한 정보를 가지지 못한 개인이 현실에 발현되는 의미심장한 패턴들을 따라가며 그 뒤에 숨은 비밀스러운 행위자 집단을 추적하여 결국 정보의 격차를 따라잡는다’는 지극히 ‘정보화 사회’스러운 마스터 플롯을 통해서도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서사의 쇠락과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1990년대의

82) “자신이 안다고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순간, 모르는 수천수만 가지의 사실이 신문에 실리고 컴퓨터 통신망에 오르는 세계에 자신은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옴부즈맨이니, 시청자 고발 따위의 프로그램, 또 컴퓨터 통신 상에서의 논쟁들은 가장 객관적인 세계를 지향하는 것처럼 외피를 입혔지만 기실은 가장 기하학적이고 비이성적인 풍문을 말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안다는 것은 자신만이 안다는 것에 불과하였다. 계몽의 시대는 끝이 났으며 정보의 획득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김연수, 앞의 책,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 101쪽.)

물적 조건은 모두에게 ‘고통’으로만 감각된 것일까. 1990년대 한국 소설에 나타난 음모론적 상상력은 결국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환상적이고 선형적인 인과성을 도입하는 방어적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그러나 음모론적 상상력은 ‘통신문학’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나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아간다. 본고는 특히 송경아와 듀나라는 두 작가에 주목한다. 주로 PC통신을 통해 작품 활동을 이어 나갔으며⁸³⁾ 영미 SF로 대표되는 동시대 장르문학에 대한 상당한 교양을 갖추고 있었던 이 두 작가에게 1990년대의 시대적 조건이란 어쩌면 굳이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소위 ‘PC통신 네이티브’인 이들에게 정보 통신 글쓰기란 단순히 종이 위에 흑연과 잉크로 기록되던 글이 디스플레이 속 픽셀로 점멸하고 저장되는 정보값이 되는 것 이상을 의미했다. 송경아의 회고에 따르면, 인터넷 공간에서 글을 쓴다는 행위는 무엇보다 익명성과 분산의 공간 한복판으로 스스로를 던져 넣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중요한 점은 송경아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통신망에 자리잡고 있”는 이와 같은 유동적인 통신의 공간 속에서 오히려 어떠한 ‘따뜻함’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⁸⁴⁾ 탈

83) 송경아는 1994년 문예지를 통한 정식 등단 이전부터 PC통신에 습작 작품을 올리던 아마추어 작가였고, 듀나는 하이텔 ‘과학소설 동호회’에 1994년 2월 11일 <시간을 거슬러 간 나비>를 업로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듀나와 송경아의 첫 번째 창작집 『나비전쟁』(1997)과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인용』(1994)은 공통적으로 두 작가가 PC통신 게시판에 발표해온 작품들을 묶은 책이었다. (<문단에도 ‘키보드 세대’ 바람>, 『조선일보』, 1995.03.07.,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96219950307m1228&set_date=19950307&page_no=22. (검색일: 2025.02.17.); <New writer ③ 송경아>, 『조선일보』, 1997.05.01.,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369819970501m1347&set_date=19970501&page_no=34. (검색일: 2025.02.17.))

84) “글을 쓸 때 외롭지 않다는 것도 커다란 장점이다. 어쩌면 이것이 온라인 글쓰기를 오프라인 글쓰기와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인지도 모른다. 내가 온라인 상에서 글을 쓰고

진실화된 정보통신의 디스토피아를 새로운 상호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유하고 있는 이들에게, 거대한 이야기가 더이상 기
능할 수 없다는 사실과 내가 접하는 모든 정보가 어찌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절망할 필요도 없는 하나
의 상식이 아니었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의 음모론적 배경이란
오히려 이들의 소설적 상상력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샌드박스였는지도
모른다.⁸⁵⁾

그동안 송경아와 듀나에 대해 이루어진 연구는 당대 문단이 놓쳤던 두
작가의 '새로움'을 신세대, PC통신, 페미니즘 SF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
로 의미화하는 작업에 주력했다.⁸⁶⁾ 그러나 본 연구가 송경아와 듀나의 소

있는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통신망에 자리잡고 있다. 나
는 그들이 던질지도 모르는 예상 질문을 스스로 제기하고, 글을 쓸 때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있다는 기분을 느낀다. 골방에서의 '고독한' 글쓰기를 벗어난, 외롭지 않은 글쓰
기."(송경아, 「통신 글쓰기의 여러 가지 모습」, 『오늘의 문예비평』 1997년 여름호, 32
쪽.)

85) 로라 J. 구락에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말을 구어와 문어의 중간지점에 놓는 속도
감, 다수에게 동시에 도달할 수 있는 도달성, 젠더를 포함해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익
명성,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나 담론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양방향성 위에서 실행된다.
요컨대 전자통신 기술은 정보의 이동을 매개하는 것을 넘어, 언어를 통한 주체 형성과
정치 활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로라 J. 구락, 『거미줄에 걸린 웹』, 강수아 옮김, 코기
토, 2002, 51-74쪽.)

86) 송경아와 듀나를 나란히 읽는 대표적인 작업인 허민석과 노태훈의 연구는 두 작가의
글쓰기를 새로운 매체와 장르를 통해 기존 젠더 체제에 대항하려는 문화/정치적 시도
로 본다. 이는 허민석에게는 영미 페미니즘을 전범 삼아 지배적 리얼리티를 탈구시킴
고 비인간화를 통해 '한국'을 낫설게 만들며 1990년대 진정성 담론에 대항하였던 글
쓰기로. (허민석, 앞의 글, 351-352쪽.) 노태훈에게는 소수성(minority)의 감각이 글
쓰기-읽기 매체의 변화를 통해 확보되어 갔던 대표적 사례로 의미화된다. (노태훈, 앞
의 글, 141-184쪽.) 송경아 소설의 신화 패러디 양상을 "텍스트 현실의 젠더 불균형"
에 도전하는 글쓰기로 본 서옥희의 연구, (서옥희,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도전: 1990
년대 송경아 소설의 신화 다시 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6호, 한국현대문학회,
2022, 518쪽.) 명확한 결말을 상정하지 않고 끝나는 송경아의 부영시 연작을 '법의 언
어'를 교란하는 불안의 문학으로 읽는 이한나의 연구, (이한나, 「여성, SF, 법: 송경아

설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두 작가가 이와 같은 세대적/매체적/장르적 공통점 이외에도 ‘메타 음모론’이라는 서사 기법을 공유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전유 행위가 1990년대 소설 쓰기를 통한 문화/정치적 저항의 구체적 실천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음모론적 상상력의 전유라는 관점은 당시 PC통신 문학에서 펼쳐진 ‘소수(자)적 상상력’이 어떠한 서사 관습 위에서, 무엇을 패러디하며 실현되고 있었는지 살피는 데 유용하다. 송경아와 두나의 소설에서 음모론은 마치 하나의 기법(technique)처럼 사용된다. “요새 나온 정말로 흥미진진한 작품들은 음모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음모 이론을 가지고 [노]”⁸⁷⁾는 작품이라는 두나의 호언을 증명하듯, 그들은 국수주의적 공포와 자기위안적인 증력에 매달려 있었던 당시 한국 사회의 음모론적 상상력을 특정 정치/역사적 맥락에서 탈각시켜 소설적 도구로써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음모론적 상상력을 추동하는 엔진은 국내/외 정치적 격동으로 인한 ‘나의 고통’에서 스크린 뒤에서 누리는 해방감으로 교체되고, 음모를 꾸미는 ‘적’들은 더이상 ‘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송경아와 두나의 소설에서는 이처럼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던 부정적 자장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층위로 도약한 ‘메타 음모론’의 상상력이 자유롭게 펼쳐진다.

송경아의 소설 〈유괴〉(1994)⁸⁸⁾의 주인공 문형경(‘나’)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소설이라고 믿고 있다. 문형경은 대학

소설의 고립과 접촉, 그리고 불안에 관해], 『동악어문학』 제90호, 동악어문학회, 2023.) 두나 문학의 인물과 시점으로부터 진정성 담론의 계승을 거부하는 모멘텀을 읽어내는 연남경의 연구(연남경, 「SF를 경유한 한국문학과 감수성의 변화 - 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24.) 역시 공통적으로 PC통신이라는 매체와 소수(자)적 상상력을 연관 짓고 있다.

87) 두나, 「내가 맞았구나, 하지만 뭐가 맞았지?」, 『리뷰』 1998년 겨울호, 258-259쪽.

88) 송경아, 〈유괴〉,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교 4학년을 마칠 무렵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 세계가 모두 익명의 작가가 창조해낸 허구이며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감정을 느낀다는”(228) 강박관념에 시달리기 시작한다. 문형경은 이와 같은 작가의 음모에 대항하기 위해 작가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을 발생시켜 그에게 복수하고, 더 나아가 평화로운 중산층 도시인 부영시 시민들에게 세계 전체가 언어로 이루어진 음모라는 사실을 알리려고 시도한다. ‘알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음모에 의해 나의 자유의지가 침해받고 있다’는 전형적인 음모론의 상상력이 그 시작부터 메타-소설론적인 차원으로 비약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할만한데, 이는 송경아에게 음모론과 결부된 1990년대의 사회/정치적인 중력이 더이상 주요하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기도 하다.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문형경은 인근 중학교로 침투하여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 소년 ‘이근영’을 납치/유괴해 도망친다.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4일의 기간 동안 문형경과 이근영은 다양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자못 허황되어 보이는 자신의 유괴 이유를 설명하는 문형경에게 이근영이 도리어 자신 역시도 오래 전부터 이 세계가 허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한다는 것이다. 소설가 어머니를 둔 이근영은 세계가 이야기 속에서만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내 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우주와 시공간과 동일한 아름다운 재료로 이루어진 누군가의 세공품이며, 나도 내 음성기관과 뇌의 한 기능의 연장으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는 개체라는 사실이죠. (...) 작가가 텍스트를 형성하는 만큼이나 텍스트도 작가를 형성하지요. (...) 내가 텍스트를 창조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나는 전능해요. (266-267)

〈유괴〉는 이처럼 문형경과 이근영이라는 두 음모론자의 만남을 그리고 있지만, 소설 속에서 두 인물이 음모를 대하는 태도는 상이하다. 상기하였듯 문형경에게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작가가 창조해낸 허구라는 사실은 무엇보다 자신의 자유가 침해되는 ‘고통’으로 받아들여지며, 그러한 세계를 창조한 작가는 명확한 적의 형상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이근영에게 동일한 사실은 오히려 하나의 ‘기쁨’으로 여겨지며, 그것은 지금-여기의 세계와 평행한 우주 위에 놓여있는 수많은 ‘다른 이야기’ 속에는 지금과 달리 “우월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존재하는 수만 수천의 ‘나’가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어진다. 요컨대, 이근영에게 세계의 음모적 본질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와 무관한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세계를 직접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유괴〉에서 송경아는 이근영의 모습을 통해 음모론이 현실의 고통에 대해 ‘적’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방어하는 전형적인 인식 패턴으로 소용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펼쳐 보인다. 음모의 증핵에 위치한 것으로 상상되는 작가는 더이상 내가 저항해야 할 적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설에서 작가는 소설 속 등장인물과 함께 상호텍스트적이고 쌍방향적인 소통 구조 속에서 세계-이야기를 만들어나가는 자애로운 ‘신’ 혹은 ‘파트너(동업자)’와 같은 존재이다. 이근영에게 있어 음모에 대한 믿음은 마치 어떠한 신념의 차원으로까지 승화되는 것처럼 보인다. 소설 속 문형경은 이근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작가가 보낸 괴물”(269)이라고 생각함에 따라 결국 그를 강간하고 살해하게 되지만, 이근영은 자신에게 충구를 겨누는 문형경에게 “작가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 작가의 의미가 우위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당신이 해를 끼치지 못할 건 자명”(281)하다고 읊조리며 마지막까지 그의 근시안을 사뭇 경건하게 꾸짖는다.

소설 속 음모론을 기존의 부정적 관성으로부터 빗겨날 수 있게 만들었던 ‘쌍방향적 소통’에 대한 이근영의 관점은 송경아가 익혀온 PC통신 세계의 상상력과도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소설이 끝난 뒤 이어지는 <작가의 말 II: 떠다니는 그림자, 부영시>에서 작가(‘나’)는 가슴에 구멍이 뚫린 채 걸어오는 작중인물 이근영을 만나게 된다.⁸⁹⁾ 여기서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은 마치 PC통신의 세계와 닮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근영은 이야기의 상대방인 ‘나’를 “경아님”이라고 호칭하며, 이에 대해 송경아는 “OO님이라는 것은 컴퓨터 통신상에서 이야기를 나눌 때(chatting) 상대를 불러주는 호칭”⁹⁰⁾이라고 각주를 통해 부연한다. 그곳에서 등장인물 이근영과 작가 ‘나’는 그들이 함께 만들었던 것에 다른 아닌 소설 <유괴>의 결말과 의미에 대해 어떠한 적대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서로 키스를 나눈다. 이 장면은 현실과 허구가 “‘상상력’이라는 부분”⁹¹⁾에서 위계관계가 아닌 공유

89) <유괴>는 복잡한 메타 구조로 둘러싸여 있는 텍스트이다. 이 소설은 중심 서사를 담은 문형경의 일기, 일기 앞뒤로는 문형경의 친구 ‘성진호’의 논평인 ‘서(序)’와 ‘결(結)’, 일기들 사이 삽입된 작가의 ‘창작노트’까지 3중 구조로, 소설이 끝난 뒤 이어지는 파라텍스트 <작가의 말 II: 떠다니는 그림자, 부영시>까지 합하면 총 4중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파라텍스트로 제시된 ‘작가의 말’에 이르러 허구(이근영)와 현실(‘나’)은 구분 불가능하게 뒤섞인다. 앞서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에서 나타난 메타적 복잡성이 기술(技術)적 미진함으로 인해 야기된 소설 내적인 혼란에 대해 외부의 작가가 의미를 덧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유괴>의 메타적 복잡성은 소설이 애초부터 겨냥하고 있었던 ‘현실의 허구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극단까지 밀어 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하게 평가될 수 있다. <유괴>의 메타적 구성이 “시물레이션된 현실을 그리기 때문이 아니라 시물레이션된 현실을 직접 경험하게” 만든다는 김미현의 평가는 <유괴>가 보여주는 내용과 형식의 정합성을 근거로 그것이 이야기하는 “참여와 몰입(…) 능동적 개입과 영향”을 고평하는 하나의 관점을 보여준다. (김미현, 『새로운 문학 십자군의 행로: 송경아론』, 『문학과 사회』 1999년 가을호, 1161쪽.)

90) 송경아, <작가의 말 II: 떠다니는 그림자, 부영시>,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 287쪽.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91) “상상력은 경아님에게 있어서 생활을 구성하는 한 요소니까. 그 ‘상상력’이라는 부분이 부영시민들과 경아님이 공유하는 점이 되겠지요. 경아님에게는 꿈으로서, 부영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음모론적 상상력이 ‘적’에 대한 공포가 아닌 새로운 현실에 대한 기대로 변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송경아의 소설 〈송어와 은어〉(1994)⁹²에서 ‘적’의 형상은 또다시 변하게 된다. 소설은 숙부의 부탁으로 출장차 부영시에 머무르게 된 주인공 김준형(‘나’)이 겪은 7일간의 이야기이다.⁹³ 첫째 날 밤 김준형은 부영시의 골목을 떠돌다가 우연히 ‘시냇물’이라는 이름의 카페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송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여성과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나 부영시의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에게 절대로 ‘시냇물’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시냇물’은 “사회를 거부하고 그 사회에 거부당하는 사람들”(162)이 모여 있는 위험한 장소이다. 부영시의 토박이들은 이처럼 ‘시냇물’을 부영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죄의 온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을 타자화하는 음모론적인 시각은 주민들에게 “강철같

민들에게는 현실로서 말이예요.”(288)

92) 송경아, 〈송어와 은어〉,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화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93) 송경아의 〈유괴〉, 〈송어와 은어〉는 장편 〈아기 찾기〉(1997)로 이어지는 연작 소설로 세 편 모두 가상의 도시 ‘부영시’를 배경으로 한다. 특히 〈송어와 은어〉는 선행 연구에서 동성애를 전면적으로 다룬 소설로 일찍이 주목된 바 있다. 기존의 논의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송어와 은어〉의 현실성과 관련해 이 소설을 판타지적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는 점이다. 노태훈은 부영시 연작을 “주목할 만한 퀴어 판타지 형식”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송어와 은어〉를 레즈비언 정체성을 전면화한 “본격적인 퀴어 소설”로, 〈아기 찾기〉를 이분법적 젠더 체계를 초과하는 “마이너리티-되기의 과정”으로 읽어낸다. (노태훈, 앞의 글, 158:164쪽.) 반면, 허민석은 송경아의 소설이 “순전히 불가능성의 영역인 판타지 세계에서 믿을 만한 현실 세계로 복귀하는 서사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믿을 만한(리얼리티) 자체를 완전히 탈구시켜 버리는 서사”에 가깝다는 점에서 이를 판타지로 읽는 것을 거부한다. (허민석, 앞의 글, 337-338쪽.) 본고는 〈유괴〉와 〈송어와 은어〉를 위시한 부영시 연작이 불가능한 현실을 그리는 판타지가 아니라 가능한 이야기들을 서로 경합시키는 종류의 소설이라는 허민석의 견해에 동의하며, 리얼리티를 탈구시키는 이와 같은 서사 형식이 음모론적 상상력과 그것의 전유라는 형태로 실현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은 (···) 유대감”(170)을 제공해 주고 있기도 하다. 요컨대, 이 소설에서 부영시를 떠도는 음모론의 증핵에 놓인 것은 바로 비밀스러운 카페 ‘시냇물’과 그 안에 있는 송어라는 여성이다.

김준형은 이와 같은 도시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반복하여 접근하는데, 이를 통해 그는 서서히 카페 ‘시냇물’ 그리고 부영시를 둘러싼 비밀의 전말을 알게 된다. 그것은 바로 ‘시냇물’이 부영시의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설 속에서 ‘시냇물’을 둘러싼 이와 같은 진실이 두 개의 판본으로 나누어져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김준형이 묵고 있는 호텔 프론트맨인 박홍준이 그에게 해준 이야기에 따르면, ‘시냇물’은 5년 전 도시로 이사 온 한 레즈비언 여성에 의해 만들어진 카페로, 그곳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동성연애자라는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평화로운 부영시 전체에 대해 싸움을 걸고 있다. 부영시의 주민들은 ‘시냇물’의 존재가 외지인에게 “부영시가 동성연애자의 소굴 같은 인상”(194)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혐오하며, 제도적인 차별 또는 직접적인 폭력의 형태로 그들을 쫓아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만약 이와 같은 지배적 음모론을 수용한다면, ‘시냇물’은 평화로운 도시의 전통을 흔들고 유해한 동성애 문화를 전파하고 있는 “문화적 테러리스트”(216) 집단이다.

한편, 송어가 그에게 밝힌 내용에 따르면, 부영시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비밀스럽게 유지되어온 동성연애자들의 도시로, “조선시대 결혼 풍습과 자유연애와 동성애가 묘하게 섞”(223)인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규칙을 통해 동성연애의 전통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 닫힌 도시로서 부영시가 갖고 있는 폐쇄적인 분위기에 대해 불만을 느낀 송어는 “상대방을 얹매지 않으며, 관습에 구애받지 않으며, 따라서 동성과 이성, 이방인과 부영시민을 가리지 않으며, 소유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랑”이라는 자신의 이상(理想)을 펼치기 위해 카페 ‘시냇물’을 세웠고, 이러한 송어의 사상은 빠르게 전

파되어 그곳은 이윽고 어떤 규범에도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사랑을 위한 쉼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송어의 자기서사를 신뢰한다면, ‘시냇물’은 오히려 부영시의 음성화된 동성연애 문화에 대항하여 진정한 자유와 사랑의 이상을 설파하고 있는 진보적 사회운동이다.⁹⁴⁾

〈송어와 은어〉는 이처럼 ‘시냇물’을 적으로 간주하는 지배 집단의 음모론과 그것에 대항하고 있는 송어의 자기서사 사이에서 진동한다. 〈송어와 은어〉는 마을에 떠도는 음모론을 진실로 확정짓고 음모 집단인 ‘시냇물’을 적으로 단죄하지 않는다. 작품 내에서 두 주장 중 어느 것 하나를 진실로 확신할 만한 물적 증거 역시 주어지지 않기에 이 두 개의 해석은 ‘시냇물’의 진실을 두고 소설 전체에 걸쳐 팽팽하게 공방한다. 차라리 소설은 소수집단을 타겟으로 하는 그러한 지배담론의 음모론 자체가 거짓일 가능성을 끈질기게 견지하고자 하는 것처럼 보인다. 송어의 대항서사를 지배적 음모론을 탈구축하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향존시키며, 소설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또는 음성화하는 폭력적인 이성애주의적 선입견이 소설에서 제기되는 지배적 음모론 뒤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시화한다.⁹⁵⁾ 비록 주인

94) 송어의 말대로 부영시 전체가 동성애자들의 도시일 경우, 부영시의 전통이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이유는 동성애라는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소설에서 부영시는 매우 폐쇄적인 도시로 그려지는데, 이는 자신이 부영시에 온 지 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속을 안 터”놓는 토박이들에 답답해하는 외지 출신 택시기사의 발화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63) 이에 따르면 부영시는 결국 동성애를 자기들만의 비밀로 지키며 ‘정상적’ 젠더 시스템을 가장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동성애자들의 도시인 부영시에서조차 동성애가 음성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현상은 결국 이성애 중심성이 기본값으로 놓여 있는 현실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95) 소설 속 ‘시냇물’에 대한 부영시의 음모론이 그러하듯, 음모론이 소수집단을 타자화하는 지배적인 담론으로 소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주은우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 바 있다: “음모이론에서 제시되는 음모집단 그들의 음모는 우리 자신의 음모이다. 현실의 질서를 교란하고 전복하려는 그들의 음모는 곧 그 질서를 지키고 유지하려는 우리들의 음모 또는 그 이면인 것이다.”(주은우, 앞의 글, 24쪽.)

공 김준형은 “건설한 1인 가족의 가장”(197)으로서 스스로가 매여 있는 이성애규범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영시의 수수께끼로부터 도망치지만,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말고 부영시로 돌아와 달라는 송어의 편지는 그가 도시를 떠난 후에도 날아와 끝까지 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두나의 <스핑크스 아래서>(1998)⁹⁶ 역시 전형적인 음모론 서사를 따르면서도 그 중심에 무해한 소수자 집단의 형상을 배치한다. 주인공 ‘나’는 어느 날 영화 데이터베이스 사이트 IMDb를 탐방하다가 우연히 1946년 작품인 <스핑크스 아래서>라는 제목의 영화를 클릭하게 된다. 이후 ‘나’는 감독과 주연 배우 몇 명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던 정보 페이지의 자료들이 시놉시스, 스태프 목록, 평점, 스틸컷 등으로 채워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게 된다. 의구심에 사로잡힌 ‘나’는 <스핑크스 아래서>라는 영화 항목을 사이트에 처음 등록했던 유저 올리비아에게 연락을 취하고, 그녀로부터 그것이 단지 자신이 심심풀이로 만든 가짜 항목이었을 뿐이라는 고백을 듣게 된다.

그러나 <스핑크스 아래서>의 항목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늘어난다. 스틸컷, 비평, 필모그래피, avi 파일 등 정교하게 조작된 자료들이 덧붙으며 <스핑크스 아래서>는 마치 공식적으로 존재했지만 안타깝게도 필름이 유실된 영화처럼 여겨진다. 심지어 개봉 당시에 그 영화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몇몇 평론가들에 의해 <스핑크스 아래서>는 1940년대 필름 느와르의 역사에서 두 여성 인물들의 레즈비언 섹슈얼리티를 진지하게 담아낸 매우 선구적인 작품으로까지 고평가된다. 그것은 미비했던 1940년대 퀴어 영화의 계보를 보충하는 근사한 ‘고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출연 배우의 인터뷰가 속속들이 올라오고 유실되었던 필름이 발견되어 영화가 재개

96) 두나, <스핑크스 아래서>, 『면세구역』, 국민서관, 2000.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봉되는 시점에 이르러 한 시네필의 장난으로 시작되었던 〈스핑크스 아래서〉는 ‘진짜’ 영화가 된다. 올리비아는 “세계가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인지, 초자연현상”(36)인지 모르겠다며 충격과 혼란에 빠진다.

이쯤 되면 진짜 영화와 소설들을 조작해내는 전세계적인 비밀조직의 음모설을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참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 가상의 비밀조직은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는가? 〈스핑크스 아래서〉와 같은 걸작을 공장생산물처럼 조작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쓸모있는 일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나는 보다 그럴싸한 가설을 꾸며낼 수 없을까 머리를 싸매기 시작했고 그 때 당신이 생각났다. (...) 만약 1940년대 필름 느와르가 게이 여성의 존재를 이용하는 데에 실패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나중이라도 보충해 주는 것이 우리의, 아니 당신들의 의무라는 말이다. (40-41)

소설에서 ‘나’는 영화 〈스핑크스 아래서〉를 둘러싼 음모의 배후에 “가짜 영화와 소설들을 조작해내는 전세계적인 비밀 조직”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론적인 인식들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이러한 ‘적’은 일견 무해해 보이며, 혹자에게는 “좀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비추어질 듯한 그들의 목적은 악의를 갖고 누군가를 해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물질 기반이 빈약했던 퀴어 시네마의 계보를 사후적으로 보충하여 자신들의 ‘소수적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의미화된다. 이제 음모집단은 일본 우익 단체도, 친미 자본과 영합한 엘리트들도, 80년대적인 잔존권력도 아니라, 허구의 예술작품을 조작해 서라도 퀴어 예술의 계보를 부풀리고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려는 소수자들이 된다.

소설 〈스핑크스 아래서〉가 그려내는 것은 음모론적 상상력이 그 종착지

에서 소수자 정치와 만나는 현장이다. ‘나’는 역사를 조작하면서까지 스스로의 의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방식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대해 직접적인 적대감을 노출하지는 않는다. 차라리 소설에서 ‘나’는 그들이 하는 작업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문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처럼 보인다.⁹⁷⁾ 상실된 역사를 사후적으로 만들어가는 소수자들의 은밀한 작업이 과연 잘못되었다고 쉽게 말할 수 있는지. 잘못되었다면 방식에 있어서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나’는 이에 대해 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는데, 그러한 외중 ‘나’는 마스크 곳곳에서 발견되는 이들의 대범한 기획을 목격하며 부정할 수 없는 은밀한 “흥분”(42)을 느끼기도 한다. 소설은 영화 〈스핑크스 아래서〉가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이없어하던 원작자 올리비아 역시 해당 음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암시와 함께 끝난다. 현실을 창조하고 해방하려는 소수자들의 음모는 소설이 끝난 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다.

음모의 중심에 놓인 ‘적’의 형상은 두나의 단편 〈꼭두각시들〉(2000)⁹⁸⁾에 오면 최종적으로 무화되기에 이른다. 정신조종 모티프를 내세운 이 소설은 진정성 레짐이나 주체적 개인과 같은 본질주의적 주체가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증상적 작품으로 읽힌 바 있다.⁹⁹⁾ 이때 주목할 것은 자기실현을

97) “분명히 나는 반박을 했고, 사실 지금도 당신을 반박하고 싶지만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있으며 내 미약한 반박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이 범죄의식 없이 과거를 건드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41); “필연적은 아니라고 해도 이런 주장에는 어딘가 종말론의 분위기가 풍긴다. 당신들은 세상이 끝나기 전에 못한 일을 허겁지겁 마무리짓는 사람들 같다. / 사실 나는 당신들 때문에 지금 매우 불안하다. 당신이 뻔뻔스럽게 (...) 당신들의 주장을 나에게 들이밀고, 분명히 올리비아가 어떻게 나올지 알면서도 태연스럽게 그녀의 창작품을 사용하는 데에는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42)

98) 두나, 「꼭두각시들」, 『태평양 횡단 특급』, 문학과지성사, 2002. 이후의 인용에서는 쪽수만 밝힌다.

목표로 하는 진정성 주체의 파탄이 음모론자, 혹은 음모론적 주체가 되어 가는 과정으로 그려진다는 점이다. 주인공 '나'는 국가 하위 기관인 '정신조작팀'에서 특별한 기계를 조작하여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는 비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종사이다. 11년 차 베테랑 조종사인 '나'는 3년 전부터 한 국방부 장군의 정신을 조종하는 일을 해오고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어느 날 '나'가 자신이 조종하고 있는 장군으로부터 정신조작팀이 대폭 축소될 수도 있다는 소문을 엿듣게 됨에 따라 시작된다. 조직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자신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더 나아가 자신이 청산당할 것이라는 공포에 '나'는 “조종사는 조종 자체에만 흥미를 느끼고 그 이외에는 관심도 두지 말아야 한다”(189)는 정신 조종의 제일 규칙을 어기고 처음으로 월권행위를 한다. 장군을 조종해 비밀문서에 접근한 '나'는 충격적이게도 상부의 직원들이 자신을 누군가의 정신조종 대상, 즉 '꼭두각시'로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모든 조종 행위가 또 다른 조종사에 의해 조작된 것일 수도 있다는 감각. 심지어 지금 행하고 있는 월권행위마저도 적국의 누군가가 정보를 캐내기 위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감각은 음모의 늪으로 '나'를 던져 넣는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편집증적인 물음들이 이어지고, 그것은 이내 자유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를 묻는 철학적인 차원, 인간이 내리는 선택의 궁극적인 원인을 찾아가는 종교적인 차원, 진실과 허구 사이의 경계를 비판적으로 파고드는 메타 픽션적인 차원으로까지 비약한다. “수많은 인과의 고리 속에서 필사적으로 자유의지를 찾아 헤맸던 옛 신학자”(195)와 같은 비장한 포부와 함께, '나'는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적들을 하나씩 거슬러 추적해 올라가며, 음모의 중

99) 연남경, 앞의 글, 30-31쪽.

핵에 위치하고 있을 '제1원인'을 찾아 나간다.

역추적기와 스파이 도구를 무기로 삼아 우리를 조종하는 사람들의 긴 사슬을 따라 올라간 결과 우리가 알아낸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우리는 정신 조작 전쟁을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남의 조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우리가 올라가고 있던 것은 아름답게 한 줄로 이어진 계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장 구석의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다. 모두가 조종을 하고 있었고 모두가 조종을 받고 있었다. (...) 제1원인은 없었다. 정신 조작 전쟁은 순수한 난장판이었다. 모두의 의지가 모두의 행동과 생각 속에 얽혀 있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의심도 하지 않았다. 모두가 정신 조작기를 통해 상대방의 불신을 지우고 있었으니까. (198-199)

그러나 그 결과 '나'가 마주하게 된 것은 '모두가 모두를 서로 조종하고 있다'는 황당한 진실이다. 결말부에서 드러난 조종 관계는 그것을 추적하는 선형적 인과성이 무의미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채 분산되어 있으며, 심지어 '나는 자신을 조종하고 있던 주체 역시 결국 자신이 조종하는 대상과 이어진 원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¹⁰⁰⁾ 이제는 조종당하는 자와 조종하는 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꼭두각시들> 속 음모는 구체성이 탈각된 채 세계 전체에 편재하는 원리라는 추상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심지어 그러한 원리는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작한 것도 아니라, 그저 한 게으른 조종사가 업무 시간 도중 농땡이를 피우다 일으킨 실수에 불과하다.

이처럼 <꼭두각시들>은 음모론 서사에 대한 메타적 패러디를 구사하며

100) 구체적인 현상들 뒤에 있는 개별 행위자들은 고유명사로 특정되지 않고 소설 속에서 다만 '정신조작팀' 또는 '조종사'라고만 불릴 뿐이며, 결국 말미에 이르러 그들조차 한 날 꼭두각시에 불과했음이 밝혀진다.

결말부의 반전을 통해 그와 같은 음모의 중심이 애초부터 텅 비어 있었음을 폭로한다. 한편으로 소설은 음모의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스펜스와 또 기존의 음모론 소설에서 으레 중요하게 여겨져 온 추리 소설적인 디테일 자체에 대해서도 은근한 장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소설에서 주인공 ‘나’가 자신을 조종하는 조종사를 추적하기 위해 ‘역추적 기계’를 개발하는 과정은 “나는 문헌을 뒤지고 모르는 건 물어가면서 대충 역추적 기계를 만들어갔다”(196)라는 구절을 통해 황당하게 처리된다. 본래 비장한 긴장을 야기해야 하는 음모 추적 과정의 디테일을 모조리 사상시킴으로써 두나는 최종적으로 음모론의 장르화된 패턴 자체를 탈구축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를 통과하며 변화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상하며 그로부터 위안의 단초를 얻어냈던 음모론의 인식들은 이제 한갓 ‘유치한’ 방식으로만 여겨지는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음모론’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1990년대 한국문학 장의 다채로운 풍경을 설명하는 하나의 내러티브를 마련해보고자 시도했다. 형식적 민주화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이라는 체제적/이념적 전환에 직면하여 1990년대 한국 사회에는 이른바 ‘적의 부재’라고 요약될 수 있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음모론적 상상력은 명확한 적의 형상을 제시함으로써 선형적이고 이분법적인 내러티브로 대중의 혼란을 위무했다. 당시 한국문학 장에서 이에 대한 소설적 반영은 무엇보다 대중문학 장에서 이루어졌다.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을 필두로 음모론적 상상력을 요체로 한 일련의 소설은 1990년대 초반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일약 베스트셀러에 등극했다. 이들 소설은 ‘일본’과 ‘노론’ 진영을 자신의 적으로 상정하는 음모론적 인식들을 무반성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전형적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함몰되는 정치적 경향성을 띠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후일담적 주체의 내성적 벡터와 변별되는 독특한 행위성의 양상을 길어내기도 했다.

또한 본고는 작가세계 문학상 제 2·3회 수상작인 장태일의 〈49일의 남자〉와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에 나타난 음모론적 상상력을 살피며 소위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의 접경지대에서 벌어진 흥미로운 풍경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고는 당시 상업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던 음모론의 플랫폼을 빌려 1990년대 한국의 지배질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던 당대 신진 문예지의 욕망과 더불어, 그러한 상상력이 전면적으로 수용되지 못하고 어디까지나 후일담과 메타픽션이라는 순수문학의 관습적 외피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일종의 한계를 확인하였다. 이는 한편으로 앞서 문학과지성사에서 투고 원고로 출판된 이명행의 〈황색새의 발톱〉이 보여주었던 과도기적 면모와도 밀접하게 교호하고 있었다.

1990년대를 풍미했던 음모론적 상상력이 가장 독특한 행보를 보여준 곳은 바로 ‘통신문학’이라는 새로운 영토에서였다. PC통신 게시판의 새로운 소통양식과 장르문학적 박식(博識)을 바탕으로 집필을 이어나갔던 송경아와 듀나의 소설에서 음모론은 마치 하나의 비판적 서사 기법처럼 사용된다. 기존의 음모론 소설을 지배하고 있었던 국수주의적 관성은 더이상 작동하지 않으며, 음모의 중핵에 놓인 ‘적’의 형상은 소설 밖 작가, 성소수자, 그리고 텅 빈 공허로 대체된다. 소설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넘어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에 대한 음모를 제기하는 메타적 구조로 도약하며 (<유괴>), 음모론의 서사 패턴은 1990년대에 부상한 소수자 정치에 대한

작가 본인의 의제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송어와 은어〉, 〈스핑크스 아래서〉). 파헤쳐진 음모의 실체에 '텅 빈 공허'를 가져다놓는 대범함에 이르러 마침내 1990년대 한국 소설이 채택했던 음모론의 인식들은 내적으로 탈구축되기에 이른다(〈꼭두각시들〉).

이상의 작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음모론은 1990년대 한국 소설의 문학적 성취를 평가하는 유효한 범주와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시각은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대중문학 그리고 통신문학의 영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문학적 시도들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열어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0년대 한국문학이 지금-여기의 우리에게 남긴 유산에 대한 진정한 상속은, 당시 문단 전체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음모론적 상상력을 한갓 소극이나 유행으로 기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 그와 같은 상상력이 발흥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이유와 또 그것이 산출했던 역동적인 효과를 정당히 평가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서론의 에피그램을 다시 빌려, 소설의 운명은 바로 그곳에서 뒤늦게 발견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연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 세계사, 1994.
- 김진명,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해냄, 1993.
- _____,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2』, 해냄, 1993.
- _____,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3』, 해냄, 1993.
- 듀나, 『면세구역』, 국민서관, 2000.
- _____, 『태평양 횡단 특급』, 문학과지성사, 2002.
- 송경아, 『성교가 두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문학적 고찰 중 사례연구 부분 인용』, 여성사, 1994.
- 이명행, 『황색새의 발톱』, 문학과지성사, 1993.
- 이인화, 『영원한 제국』, 세계사, 1993.
- 장태일, 『49일의 남자』, 세계사, 1993.

2. 논문과 단행본

- 강내희, 「신자유주의와 문화」, 『신자유주의와 문화』, 문화과학사, 2000, 19-47쪽.
- 곽동훈, 「저는 음모이론의 팬이에요」, 『리뷰』 1998년 겨울호, 252-255쪽.
- 김경원, 「이념의 상실과 민족주의의 왜곡」, 『민족문화사연구』 제8호, 민족문화사학회, 1995, 369-379쪽.
-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 - 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제56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249-273쪽.
- 김미현, 「새로운 문학 십자군의 행로: 송경아론」, 『문학과사회』 1999년 가을호, 1144-1161쪽.
- 김보경, 「1990년대 『녹색평론』의 생태 담론의 형성과 이론적 기반」, 『여성문학연구』 제5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3, 10-44쪽.
- 김연수, 『청춘의 문장들+』, 마음산책, 2014.
- 김영찬, 「무라카미 하루키, 사라지는 매개자와 1990년대 한국문학」, 『한국학논집』 제

- 72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7-30쪽.
- 김요섭, 「문학상에 대해 말해야 할 것과 문학상이 말해주는 것」, 『문장웹진』 2021년 2월호. https://munjang.or.kr/board.es?mid=a20104000000&bid=0004&list_no=2485&act=view. (검색일: 2025.02.17.)
- 김윤식, 「후일담 문학과 소설가 소설의 넘어서기론」, 『90년대 한국소설의 표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1993, 561-600쪽.
- 김은하, 「386세대 여성 후일담과 성/속의 통과제의 - 공지영과 김인숙의 소설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3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43-78쪽.
- 김정선, 「음모론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한국영화의 징후들: 편집증적 세계관의 정상화」, 『현대문학의 연구』 제63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7, 445-497쪽.
- 김정숙·최수이, 「갈등과 화해를 통한 성숙의 서사 - 김연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호,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03-226쪽.
- 김정자, 「역사 다르게 읽기, 그 허와 실에서 본 소설 <영원한 제국>」, 『현대소설연구』 제1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1, 377-397쪽.
- 노태훈, 「1990년대 한국소설과 소수성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2.
- 단요, 「이미 존재하는 문학(들)」, 『대산문화』 2024년 가을호. <https://webzine.daesan.or.kr/sub.html?uid=4595&ho=108>. (검색일: 2025.02.17.)
-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한국경제신문사, 1994.
- 듀나, 「내가 맞았구나, 하지만 뭐가 맞았지?」, 『리뷰』 1998년 겨울호, 256-259쪽.
- 류보선, 「거대한 '적'의 발견과 소설적 움직임」, 『문학사상』 1993년 11월호, 272-287쪽.
- 박광용, 「소설 『영원한 제국』: 풍부한 상상력·빈곤한 역사의식」, 『역사비평』 제25호, 역사비평사, 1993, 118-124쪽.
- 박대호, 「정보 산업 사회에 대한 문학의 응전 양식」, 『문학과 사회』 1991년 여름호, 624-637쪽.
- 박완서, 「세련되고 감각적인 문장, 추리소설 기법」, 『작가세계』 1993년 봄호, 319-321쪽.
- 박유희, 「한국 추리서사와 탐정의 존재론」, 『대중서사장르의 모든 것 : 추리물』, 이론과실천, 2011, 13-73쪽.

- 박해남, 「1990년대의 국제화·세계화와 대중 민족주의」, 『한국민족문화』 제77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469-513쪽.
- 박혜경, 「환상과 현실의 상황을 넘나드는 능수능란함」, 『작가세계』 1993년 봄호, 315-318쪽.
-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 - 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0호, 한국현대문학회, 2016, 547-585쪽.
- _____,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 - 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제66호, 상허학회, 2022, 151-192쪽.
- 백종륜, 「1990년대 이남희 소설의 희망론: 생태주의와 퀴어/페미니즘의 교차점을 모색하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2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67-105쪽.
-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제24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8, 9-40쪽.
- 서영채, 「소설의 운명, 1993」, 『상상』 1993년 가을호, 164-193쪽.
- _____, 「음모, 장편소설의 새로운 화두」, 『상상』 1993년 겨울호, 12-24쪽.
- _____, 「소설, 모색과 모험의 도정」, 『창작과 비평』 1994년 봄호, 124-143쪽.
- 서옥희,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도전: 1990년대 송경아 소설의 신화 다시 쓰기」,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6호, 한국현대문학회, 2022, 489-522쪽.
- 설준규, 「소문난 잔치의 먹을거리 : “세계관의 대립”?」, 『창작과비평』 1993년 겨울호, 425-428쪽.
- 손아람, 좌담 「한국문학의 폐쇄성을 넘어서: 신경숙 표절 논란으로 살펴보는 문단 권력과 문학 제도의 문제」, 『실천문학』 2015년 가을호, 16-83쪽.
-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제5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쪽.
- 송경아, 「통신 글쓰기의 여러 가지 모습」, 『오늘의 문예비평』 1997년 여름호, 29-45쪽.
- 안세진, 「1990년대 후반 『문학과 사회』의 변별성 연구 - 90년대 ‘결산’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74호, 한국현대문학회, 2024, 459-506쪽.
- _____, 「1990년대 한국 문학 비평의 ‘패배할 수 없는 구조’ - 포스트모더니즘과 미적 근대성이라는 두 개의 선택지」, 『상허학보』 제72호, 상허학회, 2024, 487-

530쪽.

- 안혜연, 「1970~80년대 한국 추리소설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 _____, 「1990년대 베스트셀러에 나타난 세계화와 민족주의 -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90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3, 67-97쪽.
- 연남경, 「SF를 경유한 한국문학과 감수성의 변화 - 진정성의 주체에서 감각하는 존재로」, 『대중서사연구』 제30권 1호, 11-46쪽.
- 오혜진, 「역사추리소설의 진원지에 대한 고찰」, 『어문논집』 제67집, 중앙어문학회, 2016, 205-227쪽.
- 우한용, 「컴퓨터 시대의 소설 환경」, 『소설과 사상』 1994년 봄호, 235-246쪽.
- 유승희, 「작가가 '문학'이 될 때: 『문학동네』의 작가 발굴 제도와 자전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8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2023, 31-59쪽.
- 이광호, 「문학 장치의 경계에서 - '문학권력론'의 재인식」, 『문학과 사회』 2015년 겨울호, 399-422쪽.
- 이문구, 「허구를 반영한 현실개념, 가상을 반영한 허구」, 『작가세계』 1994년 봄호, 497-499쪽.
- 이석, 「1990년대 한국의 『은하영웅전설』 수용에 관한 고찰」, 『현대소설연구』 제87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2, 57-100쪽.
- 이소영, 「87년 체제와 적대의 정동」,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2.
- 이용기, 「임정법통론의 신성화와 '대한민국 민족주의」, 『역사비평』 제128호, 역사비평사, 2019, 326-352쪽.
- 이은자, 「역사추리소설의 대중성과 문학적 가능성」, 『대중서사연구』 제3권 1호, 대중서사학회, 1997, 227-254쪽.
- 이지행, 「후기 자본주의 시대 헐리우드 음모론 영화의 정치성」,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4권 3호, 한국콘텐츠학회, 2014, 140-150쪽.
- 이채원, 「후일담 소설의 젠더 지평」, 『여성문학연구』 제4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9, 191-226쪽.
- 이청, 「등단 시스템의 변화와 복수 등단의 의미」, 『로컬리티 인문학』 제19호, 부산대학

- 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261-286쪽.
- 이한나, 「여성, SF, 법: 송경아 소설의 고립과 접촉, 그리고 불안에 관해」, 『동악어문학』 제90호, 동악어문학회, 2023, 315-340쪽.
- 임희현, 「1990년대 한국 후일담 문학과 '애도'의 의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장강명, 『당선, 합격, 계급』, 민음사, 2018.
- 전상진, 『음모론의 시대』, 문학과지성사, 2014.
- 정종현, 「뒤늦게 도착한 '68혁명'-1990년대 한국문학과 '무라카미 하루키', '밀란 쿤데라', '다이 호우잉'의 번역 소설-」, 『한국학연구』 제58호,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665-693쪽.
-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제81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221-246쪽.
- _____, 「『문학주의』의 자기동일성 - 1990년대 『문학동네』의 비평 담론」, 『상허학보』 제53호, 상허학회, 2018, 9-46쪽.
- _____, 「『문학주의』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 - 1990년대 비평이 '포스트모더니즘'과 접속하는 방식」, 『대중서사연구』 제24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8, 329-374쪽.
- 조윤정, 「1980년대 운동권에 대한 기억과 진보의 감성 - 김영현, 박일문, 공지영의 9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67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5, 277-304쪽.
- 주은우, 「음모이론의 세계 - 그들의 음모, 우리들의 음모」, 『리뷰』 1998년 겨울호, 218-251쪽.
- _____, 「금지의 명령에서 향유의 명령으로」, 『한국사회학』 제48집 5호, 한국사회학회, 2014, 59-97쪽.
- 진중권, 『네 무덤에 침을 뱉으마! 2』, 개마고원, 1998.
- 천정환, 『시대의 말 욕망의 문장』, 마음산책, 2014.
- _____, 「창비와 '신경숙'이 만났을 때 - 1990년대 한국 문학장의 재편과 여성문학의 발흥」, 『역사비평』 제112호, 역사문제연구소, 2015, 278-301쪽.
- 최가은, 「여성-문학, 자기이론적 글쓰기: 1990년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24.

- 최진석, 「장편의 상상력과 그 전망 - 최근 문학공모전을 통해 살펴본 장편소설의 현황」, 『비평문학』 제79호, 한국비평문학회, 2021, 281-309쪽.
-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 - 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제83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39-85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989년도관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0.
- _____, 『1993년도관 문예연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4.
-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예술연구소, 『한국현대예술사대계 6』, 시공사, 2005.
- 한국잡지협회, 『한국잡지협회 60년사』, 한국잡지협회, 2012.
- 한만수, 「90년대 베스트셀러 소설, 그 세계관과 오락성 - 『소설 동의보감』, 『천년의 사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원한 제국』,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제20호,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8, 189-211쪽.
- 허민, 「강경대와 서태지: 91년 5월 투쟁의 소설적 재현과 저항의 대중문화화」,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9호, 한국현대문학회, 2023, 315-354쪽.
- _____, 「후일담의 역사와 '운동권'의 글쓰기」, 『구보학보』 제37호, 구보학회, 2024, 81-115쪽.
- 허민석, 「1990년대 비남성 작가 SF 소설의 젠더 정치적 의미 - 송경아와 두나(DJUNA)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61호, 한국현대문학회, 2020, 315-358쪽.
- 황국명, 「인식과 존재의 틈바구니」, 『문학동네』 1997년 여름호, 399-415쪽.
- 東浩紀, 『동물화하는 포스트모던』, 이은미 역, 문학동네, 2007.
- Fenster, Mark, *Conspiracy Theories : Secrecy and Power in American Cultur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8.
- Groh, Dieter, "The Temptation of Conspiracy Theory, or: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Part I: Preliminary Draft of a Theory of Conspiracy Theories", *Changing Conceptions of Conspiracy*, Springer, 1987, pp.1-14.
- Gurak, J. Laura, 『커미줄에 걸린 웹』, 강수아 옮김, 코기토, 2002.
- Jameson, Fredric, "Cognitive Mapping", Cary Nelson ed., *Marxism and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 Macmillan Education, 1992, pp.347-357.

- _____. 『지정학적 미학』, 조성훈 역, 현대미학사, 2007.
- Melly, Timothy, “Conspiracy in American Narrative”, *Routledge Handbook of Conspiracy Theories*, Routledge, 2020, pp.427-440.
- Prooijen, Jan-Willem Van, 『음모론』, 신영경 역, 돌베나무, 2020.
- Todorov, Tzvetan, 「탐정소설의 유형」, 『산문의 시학』, 신동욱 역, 문예출판사, 1992, 47-60쪽.
- Willman, Skip, “Spinning paranoia: the ideologies of conspiracy and contingency in postmodern culture”, *Conspiracy Nation: The Politics of Paranoia in Postwar America*,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2, pp.21-39.
- Žižek, Slavoj, 『나눌 수 없는 잔여』, 이재환 역, 도서출판 b, 2010.

3. 기타자료

- 〈“세계는 디지털 정보혁명 시대”〉, 『조선일보』, 1995.03.09.,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03090023910201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5-03-09&officeId=00023&pageNo=2&printNo=22964&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무궁화꽃이…」 4백만부 팔려 1위〉, 『경향신문』, 1994.11.3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113000329113001&editNo=20&printCount=1&publishDate=1994-11-30&officeId=00032&pageNo=13&printNo=1527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문단에 日작가 「하루키熱風」〉, 『동아일보』, 1992.06.01.,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20601&mode=19920601%2F0002490942%2F1>. (검색일: 2025.02.17.)
- 〈문단에도 ‘키보드 세대’ 바람〉, 『조선일보』, 1995.03.07.,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96219950307m1228&set_date=19950307&page_no=22. (검색일: 2025.02.17.)

- 〈부활하는 일본 군국주의〉, 『한겨레』, 1992.06.2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62100289110007&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6-21&officeId=00028&pageNo=10&printNo=1267&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서울 온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제3의 물결은 「다양성」〉, 『동아일보』, 1995.12.02.,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51202&mode=19951202%2F0002119660%2F1>. (검색일: 2025.02.17.)
- 〈세계碩學들의 現實진단과 우리의 活路 「하이테크」優位 확보 못하면 도태〉, 『매일경제』, 1994.01.17.,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01170009910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1-17&officeId=00009&pageNo=5&printNo=8647&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세계지성과의 대화 (5) 정보혁명 동참못하면 국제사회 도태〉, 『매일경제』, 1996.01.29.,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6012900099107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6-01-29&officeId=00009&pageNo=7&printNo=934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세기말, 끝인가 시작인가〉, 『경향신문』, 1997.04.12.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7041200329125001&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7-04-12&officeId=00032&pageNo=25&printNo=16075&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신세대문학 「自己」가 없다〉, 『조선일보』, 1992.05.16.,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51600239113002&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5-16&officeId=00023&pageNo=13&printNo=2199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新進들 「日작가 模作」 논란〉, 『경향신문』, 1992.05.2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52500329119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2-05-25&officeId=00032>

&pageNo=19&printNo=14415&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쌀개방 어디로 가는가 압력 배후엔 「곡물메이저」〉, 『경향신문』, 1993.12.0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20300329104003&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12-03&officeId=00032&pageNo=4&printNo=14934&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영화 「JFK」 뜻밖의 흥행성공〉, 『동아일보』, 1992.05.2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52300209226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5-23&officeId=00020&pageNo=26&printNo=21832&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올해의 베스트셀러 우리민족-문화 관심 흐름주도〉, 『조선일보』, 1993.12.18., http://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54919931218m1131&set_date=19931218&page_no=13. (검색일: 2025.02.17.)

〈일본의 끈질긴 「군사대국」 야망 경계심갖고 외교 대응 서둘때〉, 『동아일보』, 1992.03.3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33100209215006&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2-03-31&officeId=00020&pageNo=15&printNo=21781&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자아도취적 신세대특징... “등단이전부터 「소설가」의식”〉, 『조선일보』, 1993.03.16.,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28719930316m1153&set_date=19930316&page_no=15. (검색일: 2025.02.17.)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애학투련) 결성식 및 건국대 점거농성 사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오픈아카이브. <https://archives.kdemo.or.kr/collections/view/10000073>.

〈젊은 소설가 또 표절시비〉, 『경향신문』, 1992.07.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72000329119001&editNo>

- =15&printCount=1&publishDate=1992-07-20&officeId=00032&pageNo=19&printNo=14471&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정기간행물 취소사유 크게 축소〉, 『경향신문』, 1987.08.1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87081000329201003&editNo=3&printCount=1&publishDate=1987-08-10&officeId=00032&pageNo=1&printNo=12882&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 〈정기간행물 6백56종 6.29이후 신규 등록〉, 『조선일보』, 1988.07.20.,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070419880720m1021&set_date=19880720&page_no=2. (검색일: 2025.02.17.)
- 〈정보통신戰爭 (1) 「경쟁력 根幹」 먼저 붙잡자〉, 『매일경제』, 1994.04.20.,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4042000099101005&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4-04-20&officeId=00009&pageNo=1&printNo=8734&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추리기법·민족주의화두 90년대 소설의 주류 형성〉, 『경향신문』, 1993.11.09.,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10900329115001&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3-11-09&officeId=00032&pageNo=15&printNo=14912&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화제의 소설 「영원한 제국」,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영화로 만든다〉, 『동아일보』, 1994.06.03., <https://www.donga.com/archive/newslibrary/view?ymd=19940603&mode=19940603%2F0001921202%2F1>. (검색일: 2025.02.17.)
- 〈KBS2 외화극 「X파일」 공포의 미스터리 신세대 사로잡아〉, 『동아일보』, 1995.10.23.,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5102300209133006&editNo=45&printCount=1&publishDate=1995-10-23&officeId=00020&pageNo=33&printNo=23005&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New writer ③송경아〉, 『조선일보』, 1997.05.01.,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369819970501m1347&set_date=19970501&page_no=34. (검색일: 2025.02.17.)
- 〈PKO입법 일본의 '변신' 유엔 엮고 '군사대국' 눈앞에〉, 『한겨레』, 1992.06.05.,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60500289101001&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6-05&officeId=00028&pageNo=1&printNo=1253&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 〈TV극 「분노의 왕국」 한·일 파문확산〉, 『동아일보』, 1992.04.11.,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4110020921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2-04-11&officeId=00020&pageNo=10&printNo=21791&publishType=00020>. (검색일: 2025.02.17.)
- 〈UR농산물 협상 배후설〉, 『조선일보』, 1993.12.08.,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254019931208m1071&set_date=19931208&page_no=7. (검색일: 2025.02.17.)
- 〈4개언론법안 오늘처리〉, 『조선일보』, 1987.11.10.,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2049219871110m1013&set_date=19871110&page_no=1. (검색일: 2025.02.17.)
- 〈8.15 45주년 다시 일본을 경계한다 동북아패권 겨냥 자위대 증강〉, 『한겨레』, 1990.08.18.,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0081800289103005&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0-08-18&officeId=00028&pageNo=3&printNo=700&publishType=00010>. (검색일: 2025.02.17.)

Abstract

Korean Literature and the Conspiracy Imaginary in the 1990s

Ahn, Sejin, Seo, Ukhee and Jang, Wonseok(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1980s, regardless of its ideological orientation, Korean society had a clear image of the enemy to fight against. However, in the 1990s, with the formal democratization and the fall of real socialism, the enemy seemed to disappear. While suffering persisted, there was no enemy to be imagined as the cause of that suffering. This is the fundamental crisis that Korean society faced in the 1990s. In order to comprehend and explain the ongoing suffering, the conspiracy imaginary began to emerge. In the context of 1990s South Korea, conspiracy narratives functioned as a substitute for the missing grand narratives of the 1980s. In the absence of narratives, the conspiracy imaginary provided a linear and binary interpretive framework, in a way to bypass the diversified structure of the antagonism in the 1990s with the image of a collective enemy.

The paper argues that a series of conspiracy novels that emerged in the 1990s must be evaluated as an aspect of 1990s literature that responds to the realities of the time. It is an attempt to draw a cognitive map of the entire 1990s Korean literature field, including both pure and popular literature, through the framework of conspiracy theory. Chapter 2 examines how the conspiracy imaginary in popular literature field strengthened the agency of characters by analyzing Kim Jin-myung's *The Mugunghwa Bloomed* (1993), Lee In-hwa's *The Eternal Empire* (1993), and Lee Myung-haeng's *The Yellow Bird's Claw* (1993), thus discovers the nationalist ideology behind them. Chapter 3 explores Jang Tae-il's

The Man of 49 Days (1993) and Kim Yeon-soo's *Walking While Pointing to the Mask* (1994), winners of the Jalgasegye Literature Award, to identify the literary field's commercial inclinations to utilize the conspiracy imaginary, as well as the limits to which such imaginary could only be accommodated within the conventional shells of pure literature as retrospection narrative and metafiction. Chapter 4 reads Song Kyung-ah's *Kidnapping* (1994), *Trout and Silverfish* (1994), and Djuna's *Under the Sphinx* (1998) and *Puppets* (2000) to discover how the conspiracy imaginary is appropriated as a critical narrative technique in the new territory of PC literature, while the figure of the enemy at the center of the plot is replaced by writers, LGBTQ people, and the void.

(Keywords: 1990s Korean Literature, Conspiracy Theory, Nationalism, Jalgasegye Literature Award, PC Literature)

논문투고일 : 2025년 01월 06일

심사완료일 : 2025년 02월 14일

수정완료일 : 2025년 02월 17일

게재확정일 : 2025년 02월 18일